

기  
생  
관  
광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자료 제 1 집

		9
		AB-1-15
	AB-1	15

# 기 생 관 광

전국 4 개 지역실태조사 보고서

한  
국  
교  
회  
여  
성  
연  
합  
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차 례

1. 서 문.....	5
2. 관광사업의 현황과 일본인 관광객 .....	6
2. 대궐같은 관광요정.....	11
4. 기생파티의 현장.....	15
5. 관광기생 .....	21
가. 그 수는 얼마나 되나.....	21
나. 신분증명서와 호텔에 들기까지 .....	23
다. 고달픈 관광기생.....	26
라. 화대의 분배와 착취구조 .....	29
○호텔과 요정주변의 빈대들 .....	29
○포주집 안팎의 거머리들 .....	31
○갓가지 공제액.....	36
○빈손으로 나오는 아가씨들 .....	38
○숙임수에 떨어진 농촌의 딸들.....	39
6. 현 지 처 .....	40
7. 특 수 지 역 .....	44
8. 수 출 기 생 .....	48
9. 여행사의 덤핑과 매춘관광 .....	51
10. 건전관광을 위하여 .....	55

## 기생관광실태 조사보고서를 내면서

구약성서 창세기의 창조설화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람을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며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명백히 하신 것이다. 사람이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되며 사람대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해 주신 것이다.

여기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아픈 현장이 있다.

조국근대화의 물결은 관광산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매춘관광까지 등장시켰으며 여성을 모독하고 국위를 실추시키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악용하여 기독교 윤리에 위배되는 사태로까지 몰고갔다.

이와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는 우리는 1974년에 한국기생관광의 실태를 조사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년에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기생관광은 이제 해외에서까지 연예인, 해외연주, 국제결혼 등을 빙자하여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교회여성연합회는 비인도적이며,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생관광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서울, 제주, 부산, 경주 등지의 관광사업 및 기생관광 실태를 다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관광요정과 이와 흡사한 호텔 안의 한국관, 사창가의 포주집에 속한 아가씨들까지 합하여 78년도에 관광여성의 수는 최소 10만이었다고 그 후 관광객의 수가 3 배로 늘어난 현재는 30만이 넘는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기생의 서비스가 만점, 남성의 천국’이라고 관광안내서가 선전하는 기생관광의 방법은 그것을 경험했던 외국인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고른 기분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땅의 딸들이 얼마나 값없이 팔려서 어떻게 수난 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들은 호텔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받아야 하는 소양교육의 내용이 그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하며 몸을 파는 행위가 매춘이 아니라 애국

행위라고 한다는 것을 들을 때 심판 여자정신대의 교육이 연상되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신문광고를 믿고 찾아와 함정에 걸려든 나 어린 아가씨들이 밀매조직에 의해 포주에게 팔려서 부당한 명목의 빚을 걸머지고 빠져나오지 못해 윤락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사회제도의 허점과 언론의 무책임을 탓하면서 선진조국 창조를 이상으로 하고 문화민족의 긍지를 자랑해야 할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낙화암을 수놓은 정절의 여인들, 진주남강의 논개의 얼을 이어받은 우리의 딸들이 이국인들에게 몸을 팔아야 하는 억울한 이 현실! 수억만불을 번다한들 우리가 어찌 떳떳하며 이들이 받는 고통과 참혹한 인생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호소한다.

이제부터라도 환락관광이 아닌 문화관광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과 윤락여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란다.

우선 들고나는 윤락여성을 공공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점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밀매조직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윤락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폭력, 중간착취, 불법감금 행위등을 철저히 적발 조치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한다.

친애하는 교회여성 여러분!

앞으로 이땅의 어머니들이 될 꽃다운 우리 어린 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대로 우리가 잠잠히 있다면 돌들이 하늘을 향하여 소리칠 것이며 그 책임을 모른채 한 우리에게 올 심판을 면할수 있을 것인가? 이 어두운 밤을, 이 아픈 새벽을 흔들어 깨워야 하겠다.

1983. 6.

공 덕 귀

## 1. 서문

관광산업이 국가의 3차 산업으로 정해진 이후 우리정부는 이의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의 차원에서 온갖 행정적인 지원과 특혜를 아끼지 않아 관광산업은 날로 부상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국제관광은 연평균 34.9%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외화수입도 국가제정의 커다란 몫을 차지하게 되어 한 해의 관광수입이 5억불에 육박해 가고있다. 수출 1백억불의 달성이란 벅찬 과제를 이룬 다음해인 1978년 11월 27일에 사상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1백만명탑(관광공사에서 부르는 칭호)을 세우게 된것은 아시아에서는 일곱번째, 전세계에선 39번째로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자유중국 일본 다음으로 달성한 셈이 되겠다. 그러나 이렇게 반가운 일의 뒤에는 어두운 면이 너무 많다. 숙박시설의 부족 서비스의 부재, 관광 자원의 빈약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문제점들 중에서도 기생관광으로 이름 지어진 매춘 관광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 국민의 정조를 상품으로 하여서까지 외화를 벌어들인다면 5억불이 아니라 50억불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그시비는 마땅히 역사와 민족의 얼 앞에 가려져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도는 「창녀의 소굴 코리아」로 알려지게 되었고 1973년 일본 전국여성협의회에서는 한국의 국제관광협회에 "기생파티는 술한 일본남성을 유혹하고 있다"고 항의 하였다. 아울러 2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화류계를 살살이 살피고 돌아간 사실이 보도 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일본남성들에게 기생파티를 주선함으로써 한일우호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한국의 모든 여성은 한물속의 고기와 같이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란서,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에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땅의 여성들에게는 다른나라 여성들에게서 일찌기 찾아 볼 수 없는 정절사가 있고 그 정절사는 백제의 낙화암과 임진왜란 때의 진주남강의 전설로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었건만 이제는 그와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가장 호뜻한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는 여자 즉, 「기생」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어느나라 할 것 없이 관광에는 술과 여자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한다. 구미에도 나이트 클럽이 있어 웃음파는 여성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다. 어느 여성이건 웃음과 몸을 파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사생활에 속

하고 원하는 남성만이 사사로이 가는 것은 세계적인 통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광업소처럼 외국인을 위한 관광일정에 기생파티를 버젓이 집어넣고 있는 나라는 없다. 정부가 인가한 관광업소에서, 정부의 행정기관인 「국제관광공사」의 체계적인 감독하에 조직적인 매춘관광을 조장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데에 아울러 “이제까지 고도의 성장을 계속하여 온 한국관광은 환락 관광에 치우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예술의 향훈으로 수준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관광으로 새로운 진로를 찾겠다”고 다짐했던 국제관광공사 사장의 기자회견 (1979년 4월 일간스포츠 보도) 내용처럼 우리의 관광정책이 건전관광으로 하루빨리 탈바꿈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매춘관광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빈번하게 닿는 서울·부산·제주·경주의 네군데를 그 대상으로 하였고 직접 관계기관과 업소의 종사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임을 밝혀둔다. 조사기간은 1980년 2월15일부터 1980년 5월15일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 2. 관광산업의 현황과 일본인 관광객

한국 관광산업은 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60년대를 태동기, 70년대를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도약의 시기로, 80년대는 대중관광시대와 대량관광시대가 도래 할 시기로 잡고 있다.

위의 기간별 유치 인원엔 있어서는 60년대는 총497,061명에서 70년대는 총6,595,844명으로 무려 13배의 양적성장을 보였다. 1978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외래관광객 1백만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한국관광의 밝은 전망을 제시하듯 하기도 하였으며 79년에는 1,126,100명을 유치 함으로써 이제 한국관광은 백만명의 안정권내에 돌입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80년대에는 외국관광객 신장율이 최소한 10%선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80년대 초에는 200만명 80년대후반기에는 300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지난 60년대부터 79년까지의 외래 관광객의 수와 그로 인해 벌어들인 관광달러의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외래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현황

년도	전체관광객수	일본인관광객	미국인관광객	전체관광수입(1천달러)
61년	11,108	613	6,118	2,027
62년	15,184	1,825	7,328	4,632
63년	22,061	2,169	10,178	5,213
64년	24,953	2,280	11,530	15,704
65년	33,464	5,110	14,152	20,798
66년	67,965	19,740	39,274	33,817
68년	102,748	25,219	41,823	35,454
69년	126,686	31,821	49,606	32,809
70년	173,335	51,711	55,352	46,772
71년	232,795	96,531	58,003	52,383
72년	370,656	217,287	63,578	83,011
73년	679,221	436,405	무시된 숫자	2억 6천 9백만불
74년	518,000	63% 선	"	1억 5천 9백만불
75년	633,000	65% 선	"	1억 4천 1백만불
76년	834,000	63% 선	10% 내외	2억 7천 5백만불
77년	950,000	60% 선	10% 내외	3억 7천만불
78년	1,079,000	667,319	10% 내외	4억 8백만불
79년	1,126,000	649,707	10% 내외	3억 2천 6백만불

위의 통계에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60년대 외래 관광객의 대종을 이루었던 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해마다 점점 줄어들어 최근에 와서는 거의 무시할만한 숫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60년대 초반에는 미국인이 전체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해외교포로서 15~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인은 10%내외 다음이 중국·영국·기타국 순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인 관광객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65년에는 전체의 15%, 60년대 후반에는 전체의 30%로 증가했고 71년에는 41% 72년에는 73.5% 73년에는 80%까지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63% 내외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인의 절대수는 매년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그 구성비는 10%내외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본인 관광객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쩍 늘어나게 된 배경은 일본 자국내의 요소와 국제 정치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서 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일본 자국내의 요인을 살펴보면 외화 보유고가 300억불에 이른 일본은 세계에서 미국과 유럽 선진제국들과 더불어 어깨를 함께 하는 관광자원국으로 부상하여 지구위의 오대양 육대주 어느 곳에도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들어 외화의 평가절상으로 해외여행비가 저렴해지는데다가 해외여행제한의 철폐로 인한 여행의 자유화에 힘입어 공해 천지인 섬나라 일본을 벗어나려는 해외 여행 붐의 덕을 본 것이며 두번째로는 국제 정치적 요인으로 8억인구의 거대한 시장인 중공과의 국교정상화의 일환책으로 1973년 9월에 대만과 국교를 끊게 되자 대만으로 향했던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이 「평대신 닭」으로 우리나라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관광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1973년 9월은 그 유치객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라 할 수 있겠다. 일본인 단체 관광객이 부쩍 늘기 시작한 해가 1973년이기 때문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우리나라의 해외관광 알선업체와 호텔업계는 뜻밖의 호황을 누리게 되고 일본인들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쓰고 가는 외화를 벌기에 정신이 없었고 며칠 밤 사이 호텔붐이 불어 닥쳐 이렇다 할만한 재벌기업들은 다투어 호텔을 짓기 위해서 차관을 유치하기 시작 하였다.

여기서 외래 관광객중 60% 이상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한 관광 목적의 비율에서 보면 8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관광목적과 그들의 수준 및 한국관 등을 살펴 보기로 하자.

지난 어느해 교통부가 조사한 외국관광객의 기호도를 살펴보면, 구미인의 한국의 시장, 농촌, 판문점을 좋아 하는데 비해 일본인은 요정, 고궁 사찰을 좋아하는 순으로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80%가 기생파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답했다 한다. 부산의 아주관광여행사 B씨는 일본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순위는 여자, 토산품이라고 귀띔해 주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 가장 큰 관광요정인 버드나무집에서 3년 동안이나 전무직을 지낸 K씨는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 관광객을 그 방문 성격대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1) 순수한 관광 (2) 사냥과 낚시, 골프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 (3) 단지 기생파티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 (4) 장사 목적으로 오는 경우로 크게 나누고 있다. 위에서 네번째의 경우는 (1) (2) (3)의 경

우로 오는길에 여행비용을 자급자족 하기 위해서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품을 가장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판 이익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인 관광객의 수준을 보면 대개 상류층이거나 언어가 통할만한 지식인 층은 유럽이나 남미쪽을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일본인들의 계층은 주로 하층의 노동자들로 일본국내에서도 동경을 한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부산 페리 부두의 커피숍에서 차를 끊으면서 1년 이상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하여온 Y씨의 말을 빌리면 페리호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대부분 시골사람들로서 그들의 손이나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신사다운 말씨와 인격을 지닌 일본인을 보면 대부분 부부동반 하지만 거의 드물어 만나 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기생파티를 하러 올 경우 관광객의 신상이 대충 기록된 카드가 요정측에 넘어 오므로 알 수 있는데 주로 기생관광을 즐기러 오는 일본인은 자기 나라에서 최 하층의 막노동꾼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생파티를 하고 2박3일 여행을 하면서 소요되는 돈은 일본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5분의 1밖에 들지 않거든요. 지식인 층은 고급 호텔에 들지 않고 이곳의 풍속을 몸으로 느껴보고자 오히려 민박을 알선해 달라고 합니다” 라고 제주도의 K씨는 말하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의 홍보부에 근무하는 J씨는 일본 관광객의 수준을 3순위로 잡아볼 때, 그 중 1순위는 유럽, 2순위는 하와이, 3순위가 한국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부산의 어느 호텔 근무자는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오지마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기생파티가 그 목적이다. 순수 관광객은 일본인 중에 백에 둘 정도면 반가운 일이 될것이다. 이들의 수준은 한 마디로 자기나라에서 호텔이란 곳을 한번도 출입해 보지않은 듯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 예로써 엘리베이터를 운전할 줄 모르는가 하면 세면장의 세면시설을 사용할 줄 모르기도 하여 일일이 가르쳐 주고 잠옷 바람으로 복도를 거닐기도 하며 복도를 맨발 벗고 다닌다”고 수준 낮은 관광객들을 모시느라고 애쓴 고층을 털어 놓는다. 이런 하층 노동자나 농민들로 구성된 일본인 관광객은 한국의 기생파티를 즐기기 위하여 보통 6개월짜리 계를 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보너스 투어(여행)를 시켜 주거나 농민들은 농협에서 조합원을 단체로 이끌고 한국에 단체오입 원정을 오

는데 가끔 시내를 깃발을 앞세우고 수십명 또는 많을 때는 수백명씩 다니는 깃발 부대가 바로 농협의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이라는 것이다.

일본인 관광객중 단체손님은 농협의 농부나 공장의 보너스 투어, 계모임 말고도 생일파티를 기생파티로 대체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몰려오는 경우도 있다. 큰 초가 3개, 작은 초가 7개인 것을 보니 서른 일곱살인 모양이더라는 식의 이야기는 기생아가씨들에게서 지나는 말로도 자주 듣는 이야기이다.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는 경우 또 부자가 같이 기생 파티를 즐기고 파트너도 끌라 잡아 호텔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최하 18세의 미성년자까지 손님으로 접대해 본 경험이 있다고 손XX은 말하고 있다.

이런 일본인 관광객의 85% 이상이 부부동반이 아닌 남성들만의 단체관광이고 이들중 60%가 주로 40대~50대로 부부생활에서 권태기에 빠질 나이라는 점을 어느 요정 관계자는 지적해 주면서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목적을 설명하는 요소를 제시하기도 한다. 73년 일본의 국영방송 NHK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일본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은 흑인 다음으로 한국인이라고 나타나 있고 청년이나 대학생들은 오히려 흑인보다 한국인을 더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불결하다' '교활하다' '비굴하다' '행실이 나쁘다' 등을 내세운다.

최근의 일본상사와 일본인 관광객의 급증추세를 계기로 월간「일본연구」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국민은 소련이고 그 다음이 일본인이다. '사람이 잘다' '이해타산적이다' '이기주의적이다' 등이 그 이유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일본과 이웃에 접하고 있으면서도 역사적 감정으로 인해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의 배경이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 관광협회(PATA)의 조사에 따르면 「다시 와보고 싶지 않은 28개국」 가운데 한국은 9 번째로 뽑혔다. 이처럼 「다시 와보고 싶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을 철새처럼 꼭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생파티」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관광객이 터진 붓물처럼 한국으로 밀려오도록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들이 일본에서 "한국의 명물인 강장제 인삼을 먹고 기생파티를 즐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의 중년 이상은 모두 일본말을 하므로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라는 여행사의 선전이나 그 술한 주간지들에

실린 한국기생파티의 달콤한 경험담을 애기한 한국 기행문 쪼가리들을 읽고 이웃으로 부터 귀에 군살이 나도록 들은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여행사인 H여행사의 「한국여행 일정표」라는 여행안내서에 까지도 '기생의 서비스가 만점, 남성의 천국' 이라고 한국을 선전하였듯이 남성의 천국을 실현 시켜 오늘날 한국국제관광의 일번지가 된 기생파티가 그 모든 배경을 살살이 파악하지 못하고선 결코 우리나라의 외래관광 실태를 알 수 없다.

### 3. 대렬같은 관광요정

일본남성중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기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한다. 단지 관광만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하면 기생의 색향(色香)을 연상할 정도로 세계의 남자들을 기생관광으로 끌어 들이기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되었다.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지금은 기생관광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한국의 주요도시에는 여러곳에 기생하우스와 요정이 있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본래의 기생놀이이라 하는 것은 기껏해야 남자 세명 정도에 기생 세명이 그 한도이다. 그리고 차분하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시를 읊는 것이다. 이와같이 고상했던 풍류놀이를 오늘날 몇십명이고 커다란 집에 몰아 넣는 것은 귀족적이던 왕조 풍류의 멋을 저속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단체로 손님을 맞아 들인다는 것은 기생이 아니다. 그런 여자들은 대체로 가난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치마저고리를 입혀서 앉혀 놓은 가짜 기생이다. 그러므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출 줄도 모른다. 또한 단체손님을 상대하는 기생에게는 그러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같은 1974년 일본 산케이신문사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중 한국의 모든것을 소개한 내용가운데 「기생하우스의 밤과 낮」이라는 제하의 글 첫 부분이다. 참으로 자세하게도 알고 있는듯 싶다.

위와 같이 한국하면 반사적으로 기생을 함께 생각하게 만든 기생파티가 일본관광객을 상대로 하여 시작된 때가 어느때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인이 이 땅에 대량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1970년 전후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뜻밖에 찾아든 손님들을 수용할만한 시설들이 크게 부족 하였고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 자랑스럽게 보여 줄만한 문화재나 위락공간등의 관광자원이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실

정이다. 금수강산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지만 외국을 나가보면 우리의 땅이 얼마나 초라한가는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기분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빈약한 관광자원 대신 일본인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방도를 강구한 것이 오늘날 말썽이 된 기생파티의 발상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관광여행사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뒤로 기생파티는 우리가 가진 관광 기술로는 최고의 값진 보고가 되었고 이에 맛을 들인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힘입어 날이 갈수록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딸들을 도매금으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 밤마다 흥청대는 관광요정(일본인들은 기생하우스라고 부름)은 우리나라에 통털어 27개 업소이다. 이 27개 업소 가운데 서울 종로구에 K, D, C, M, S, O, C, C, P, D 중구에 B, 성북구에 D, S 도봉구에 S 등 14개의 요정이 있고 부산에 D, B, C, K, J, H, B 등 7개, 경주에 S, H, Y, K 등 4개 제주도에 B, C 등 2개의 관광요정이 있다.

위의 27개의 관광요정 이외에도 일본인 관광객에게 아가씨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업소는 각지방의 큰호텔에 부설되어있는 이른바 이름 좋은 「한국관」이라는 것이다.

한국관은 호텔 투숙객만을 상대로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설치 목적이라 한다. 한국관을 소개하는 각 호텔의 홍보자료를 보면 학이나 구름에 쌓인 산을 그려놓은 커다란 병풍을 배경으로 하고 남자들이 비단 방석에 앉아 술상을 받고있다. 그사이 사이에 외국 손님들의 파트너인 한복입은 아가씨들(기생)이 술을 따르거나 음식을 들어 권하는 모습이 함께 곁들여 있으므로 이런 호텔의 한국관이라는 곳이 무엇하는 곳이라는 것을 눈가진 사람은 사진만 보고도 금방 알 수 있게 한다. 부산의 K 호텔의 홍보자료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이러한 한국관이 있는 호텔을 기억나는대로만 헤아려 보아도 부산에 R호텔, D호텔, G호텔등이 있고 경주의 K호텔 제주에 P호텔, S관광호텔등이 있고 KAL호텔에도 녹산장이라는 한국관이 있었으나 말썽이 생겨 78년에 폐쇄 되었다. 호텔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다소 무리가 생겨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관을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는 호텔 객실판매 대상이 주로 지방일수록 일본인이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조심스런 변명을 하기도 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한때 이런 호텔에 있는 한국관의 서비스(그들의 용어)가 오히려 요정을 능가하여 일본인 관광객 대부분을 부설 한국관에서 술자리부터 여자 잠자리까지 독식했던 때가 있어서 호텔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요정에서 먹는다 라는 용어가 아가씨들의 입에 빈정거리는 투로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뭐니 뭐니하여도 기생파티의 본거지는 요정이다. 한국관광협회에서 찍어낸 회원명부에는 이러한 요정도 그냥 일반유흥음식점이라고만 간단히 적혀 있고 그 옆에 「한국식 요리점」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어서 예사 요리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주로 일본인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 국제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찍어내고 있는 「서울의 주요부」라는 안내지도에는 호텔·고궁, 주요공공시설과 더불어 친절하게도 이들 요정들의 위치까지 한자와 일본어로 적어 두었다.

이런 국제적인 유명도가 높은 요정들의 규모를 먼저 집더미의 크기를 견주어 설명해 보자면 우람하고 위치 좋기로는 단연 소문대로 삼청각과 대원각, 청운각, 선운각, 풍림, 명월관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중에서도 삼청각은 일본의 잡지들에 기생하우스 소개 자료로 그 사진이 빈번하게 오르내릴 만큼 규모가 엄청나다. 일본 사람들조차도 '궁성같이 서있는 기생하우스'라고 하였으니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위풍을 자랑한 셈이 되겠다.

삼청각과 대원각의 주인은 서로 형제 사이이기도 하다는데 성북동 부자집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아가씨를 품에 안고 술잔을 손에 든 일본관광객이 서울 장안의 밤 경치를 한눈으로 바라 볼 수 있는데다가 매연이나 소음 따위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명당중의 명당이다.

이곳은 돈이라면 살아있는 호랑이 수염도 뽑아 올 수 있다는 돈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곳으로 주택자체가 서민들에게는 관광거리가 될만한 곳이다. 삼청각과 대원각은 일본대사관저를 가운데 두고 삼청각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대원각이 금실 좋게 자리잡고 일본관광객들이 기생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듯이 앉아있다. 정문에는 중앙청의 수위처럼 금테를 두른 모자를 쓰고 정복을 입은 수위가 으레껏 대문을 지키고 있다. 삼청각은 성북동에서 청와대 뒷 부분인 삼청동으로 빠져 나가는 터널과 군작전 지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구경을 하기조차 어렵다. 담



장부터 고궁의 담벽을 연상케하는 조형무늬로 곱게 단장하고 그위로 늘어선 노송숲, 웅장하게 솟아오른 본채 뒷면에 접해있는 주차장은 시내의 큰 빌딩 주차장만한 주차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 주차장의 크기와 손님 수용능력을 계산하면 규모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밖에서 들여다본 정원은 온갖 꽃과, 나무와 기암 괴암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고 그사이로 흐르는 자연수의 물줄기가 구비 구비 돌아나가도록 하여 정원 숲 깊숙한 곳 여기 저기 지어져 있는 별채에서 술을 마시는 관광객의 흥취를 더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 가운데로 이어지는 화강암 층계는 어디로 이어 지는지 알 수 없으며 집의 생긴 외모는 한 마디로 아방궁 철옹성이다. 어느 촌 사람이 이집은 국립 박물관이라고 우기더라도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기는 격이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 아가씨들의 말을 빌리면 800명이 한 자리에서 기생파티를 벌일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하니 그 방의 크기는 시골 국민학교 운동장 쯤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이다. 삼청각의 실제주인은 한때 중앙정보부장과 정부요직으로 이름을 날렸던 정치인 이 모씨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든 아가씨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삼청각이 양식과 한식을 적당히 혼합하여 지은 집인데 견주어 대원각은 여러채의 큼직한 한옥으로 꾸며져 있다. 작달막한 일본 신사들을 모시고 온 대형버스 두 대가 한꺼번에 나란히 들고 날 수 있을 만큼 우람한 대문은 삼층누각형의 솟을 대문인데 말끔하게 칠한 단청 아래에는 한자로 흘려쓴 대원각(大苑閣)이라는 큼직한 현판이 위세도 당당하게 관광입국의 위용을 보이기라도 하려는 듯이 걸려 있다.

바로 앞의 언덕에서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대원각의 밤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요지경 속을 밝혀 주고자 끝없이 걸려 있는 청등 홍등의 구불 구불한 등불은 마치 사월 초파일에 큰 절에서 벌이는 제등 행렬을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숲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관광버스에 오르내리는 일본관광객을 맞고 보내는 여자들의 간들어진 웃음과 서투른 일본말 소리, 거기다가 가끔 무섭도록 짙어대는 경비하는 개들의 사나운 울음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들려 올때는 황홀했던 정경이 갑자기 우리를 집어 삼킬 것만 같은 도깨비들이 사는 집 처럼 느껴진다.

크기는 좀 작지만 풍림은 삼청각의 축소판으로 생각하면 되고, 우이동 도선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깊은 계곡속에 백운대를 올려다 보고 자리잡고 있는 선운각은 화강암으로 층계를 꾸민 한옥에 구름다리가 멋의

극치를 이루기도 한다.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선녀가 밤이면 구름 속에서 내려 올 듯하나 선녀 대신에 이땅의 귀한 딸들이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밤마다 정조를 흥정하는 곳이다. 삼청각과 대원각 명월관 오진암 풍림. 청운각등 어느요정에나 자가용과 대형버스 또는 마이크로 버스가 있어서 호텔에서 여자들을 부르거나 동반하여야 할 경우 기동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삼청각과 대원각 같은 업소의 자가용 대형 버스에는 아예 삼청Co.(주식회사)라고 쓰여져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요정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여자를 팔아 돈을 버는 매춘주식회사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삼청각은 오후 4시 쯤에 시내 곳곳에서 출근하는 기생아가씨들을 위해서 중앙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하였다가 실고 가기도 한다. 삼청각에는 이런 대형버스가 4대나 된다. 또 삼청각과 대원각에는 5명씩 구성된 국악 악사 팀만도 5~6개 팀이며 가요 밴드까지 합치면 한 요정에 10개 팀이 넘는 악단이 붙어서 밥벌이를 하고 있다.

그외에도 예를 들자면 끝이 없겠으나 지방의 요정으로는 제주도의 신제주에 위치하여 그 규모와 시설로는 서울의 일류 요정에 못지 않은 「버드나무집」(柳屋)의 예를 하나 더 들여 보겠다. 77년도까지만 하여도 제주도내에는 버드나무집 이외에 한라정, 만월정, 송원 같은 요정들이 그 나름대로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 관광협회 회장직에 있는 지금의 버드나무집 사장 이씨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위락시설의 확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5개 업체를 2개 업체로 줄였다. “이제는 청원각과 버드나무집 만이 신제주 신개발지역으로 옮겨 새로 말끔하게 단장하고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딸라벌기 선전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그곳의 기생아가씨 한사람은 말해주고 있다.

#### 4. 기생파티의 현장

‘한국의 밤을 장식하고 즐거움게 하려면 먼저 기생파티를 필두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글은 일본항공사가 해외 여행자들을 위해 발간한 가이드 시리즈 17호 「한국의 여행」이라는 소책자에 실린 기생파티를 소개하는 글의 첫머리 부분이다. 덧붙여서 ‘그리고 화려한 민족의 상인 치마저고리를 입은 기생의 서비스의 밤은 만점으로 정평이 나 있

다. 기생파티의 매력에 이끌리어 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도 있다고 한다. 기생파티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명물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여행사에서는 조직적으로 스케줄에 기생파티를 필수적으로 짤어 넣어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있다.

여기에서와 같이 일본인들이 말하는 정평이 나있는 매력적인 밤의 서비스는 짝짓기 부터 시작된다. 여기에서 짝짓기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전에 많이 사용한 방법으로 손님의 구두를 넣는 신발통의 번호를 여자와 손님에게 주어서 그 번호대로 자기 짝을 찾아가 옆에 앉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용되는 구두표라는 것은 보통 가로 5cm 세로 3cm 정도의 하얀 종이로 거기에는 업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빈칸에다 손님의 구두 신장 번호를 그때 그때 적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즘은 이런 방법이 시원찮거나 시간이 걸려서인지 아예 손님들의 수효보다 더 많은수의 아가씨들을 한줄로 세워두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손님이 손가락질 하여 고르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이런 방법으로 매번 술 좌석에 든다는 「청풍」의 이모 라는 아가씨는 아무리 막되먹은 화류계라지만 외국 남자들에게 딸아이 같은 여자들을 소개 하면서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전시하여 놓고 살 사람에게 끌려 잡으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고 불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만성이 되어 부끄럼이나 분노가 덜하지만 당할 때마다 기분은 나쁘다고 말한다. 어떤 일본인은 이렇게 끌려 잡은 방법도 맘에 내키지 않았는지 아예 대기실까지 들어와 두리번 거리며 끌려잡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한국의 기생에 맞들여서 수차 왕래했고 옆에 앉아보아도 별 볼일 없다는 것이다.

요정의 대기실은 건물의 지하실이나 후미진 곳에 만들어 놓은 큰방으로 구조는 목욕탕의 탈의실에 있는 것 같은 사물함이 아가씨 숫자대로 준비되어 있고 수백명의 아가씨들이 봄비는 곳이기 때문에 솜제 옷은 벗어서 걸어 놓고 앉아 있다. 거의 나체로 앉아서 화투놀이를 하거나 잡담을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기생들의 대기실에 들어와 마음에 드는 짝을 골라가는 무례한 일본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짝짓기를 경험하고 돌아간 어느 일본인 관광객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고른 기분이었다”고 잡지에 기고한 일이 있기도 하다.

이때 일인 관광객의 선택에서 제외되고 남은 수의 아가씨들이 항상 있

게 마련이다. 여기에서의 탈락이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온 몸매의 빈약이나 얼굴의 미추에 대한 평점과 직결되는 분위기가 되므로 서로 잘보이고자 하는 갖은 교태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동원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 한다.

짝 지워진 손님에게 자신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는 비단 보료방석 위에 앉아 먼저 물수건으로 손님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나면 요리상이 들어온다. 이때의 분위기를 경험한 어느 일본인은 그의 한국 기행문에서 “현관에 구두를 벗어놓고 온돌이라는 한옥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10평 정도의 넓은 방이다. 그 주위에는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이랑 호화스런 장롱 등의 장식이 놓여 있었다. 방석 위에는 특별히 큰 의자모양의 보료가 있었다. 자리에 앉자 차가 들어왔다. 잠시 후에 기생이 들어와 나의 번호를 확인한 후 나의 오른쪽에 앉았다. 손님의 오른쪽에 앉은 여자가 오늘밤 하루저녁의 파트너인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요리상이 들어오면 가끔 한국의 생소한 음식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는 사람도 있다. 술은 정종이라는 일본 상표로 더 잘 알려진 청주가 보통이고 더러 양주가 오르기도 한다. 이때 제일 먼저 권해 주는 음식은 수삼과 메추리 알이다. 정력제로 술을 들기전에 권하는 것이다.

여기 요정에서의 음식값은 사람 수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만원 쯤인데 100명이나 200명정도의 큰 단체로 술판을 벌일 때는 「두당」(頭當) (요정에서 사람수를 가리키는 말) 5천원 정도밖에 안된다. 5천원밖에 되지 않지만 요정에서는 별로 손해될 것이 없다. 음식값이라고 해야 몇푼 되지 않지만 외상이 없으며 호텔로 따라간 여자들로부터 거둬 들이는 돈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티 손님의 수가 늘어나면 11명부터 30명까지는 그중 한사람 몫을 감하여 주고 30명 이상이 되면 두명 몫을 감해 주어 여행사 측에 이익금으로 돌려주는 격이 되기도 한다. 1979년 11월 현재 각 요정에 고시된 음식값을 적어 보자면 술의 종류에 따라 몇천원의 차이가 있다. 술이 정종일 경우 1인당 18,000원이고 맥주 또는 범주일 경우 1인당 21,000원 양주일 경우 1인당 25,000원이다. 상위에 오르는 안주의 종류는 총 28가지로 1) 불고기 2) 전 3) 마른안주 4) 새우튀김 5) 과일 6) 김치 7) 야채 8) 닭탕 9) 신선로 10) 생선찜 11) 편육 12) 회 13) 포, 콩 14) 계 15) 찜 16) 밤초 17) 대합 18) 수삼 19) 갈비찜 20) 조개탕 21) 전복 22) 표고버섯 23)

계란말이 24) 문어스모노 25) 잡채 26) 생선튀김 27) 떡 28) 야채사라다, 튀김등의 다채로운 진수성찬이다. 그러나 "28가지를 차려야 한다는 것은 원칙일 뿐이고 여기에서 골라서 보통 17가지 정도로 상을 보아 주고 있다"고 제주도의 청원각 요정 주방장으로 있는 요리사는 설명하여 주고 있다. 들어온 음식을 먹으며 서로 술을 한두잔 주고 받고 입에 넣어준 음식을 씹으며 서로 웃고 낮이 익으면 처음 본 미녀들 앞에서 움츠렸던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부드러워 지면서 술판은 흥청거리기 시작한다. 어느 만큼 술판이 무르익으면 한복으로 곱게 단장한 다섯명 정도의 남녀 혼성 국악단이 가야금, 아쟁이, 대금, 장고 따위를 가지고 들어와 넘죽이 큰 절부터 하고 굿판을 벌이게 되는 순서가 된다.

어떤 노신사들은 같이 일본식 큰 절을하고 무릎을 꿇고 가만히 듣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무례한 친구는 무조건 손을 내저어 듣지 않겠다는 반대 표시를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생파티를 몇차례 경험한 축들이다. 알아 들을 수도 없는 소리판에 쓸데없이 돈을 쓸 필요가 없음을 이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10여분 정도의 연주에 일만5천원 정도의 팁을 주어야 하는 것이 통례이다. 10여분쯤 청아한 국악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마지막 한국여인의 한을 그렸다는 살풀이 춤도 끝나면 이때를 기다리더라도 하였다는 듯이 가요밴드 부대가 들어와 다시 흥을 돋군다. 이번에는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가수가 못된 여자들이 나와서 먼저 아리랑 도라지 등의 민요를 불러 가요에도 국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노래를 부르고는 일어난 동백아가씨로부터 최근에 유행하는 가요까지 요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들려준다. 심지어는 일제때의 오래된 군가도 불러제끼는 수가 있다 한다. 군가가 나오면 함께 합창이 터져 나오는 것은 예사일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선전하거나 소개하는 일본내의 관광홍보 재료에는 으레갓 사진이 두어장 함께 소개 되는데 하나는 색동 저고리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타는 아가씨와 그옆에 이도령의 때때옷을 입고 장단치는 장구쟁이 그리고 그앞에 부채를 들고 머리에 꽃술을 쓰고 전통 무용에 한창인 미모의 아가씨다. 그 배경으로는 벽을 장식한 병풍이나 고급스런 장롱등이 보이고 산해진미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다. 그 옆에 보료에 기대고 기생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는 일본 관광객의 등이 보이는 사진인데 이것은 국악부의 연주 장면을 소개한 것이다. 다른 사진은 웃옷을 벗어제친 일본인 관광객들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한복입은 기생과

두손을 맞잡고 서서 댄스를 하는 장면인데 그 뒤에는 으레히 아코디온, 기타, 드럼, 섹스폰 등을 연주하는 악사와 노래에 한창인 한복 입은 가수의 모습은 꼭 빠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요밴드가 흥을 돋구는 장면을 담은 사진인 것이다. 이러한 사진 밑에는 예의없이 '기생파티의 절정' 이라는 설명이 붙게 마련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어'(어느 일본잡지의 기사내용) 외국인으로서의 체통이나 도의 정신이 마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특수한 배경이 깔려 있는 이유로 내심 겁을 먹었던 자들이라도 그런 따위의 알레르기 정도는 말끔히 씻어 주기에 족할 만큼 흐뭇한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다.

술판의 끝이 가까와지면 이 자리의 분위기는 아예 수라장이 된다. 그 사이에 기생 아가씨들은 호텔의 잠자리에서까지 자신의 서비스(일본인들의 표현)가 필요한가를 물어서 확인해 둔다. 어떤 성급한 친구들은 요정에 도착한지 10분도 채 안되서 짝만 맞추어 주면 기생아가씨를 데리고 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영업용 자가용을 타고 쏜살같이 달아나기도 한다. 또다른 봉사를 위해 장소를 달리하여 연장 하기로 약속 받은 여자들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뒤따라 나서고 따라 가지 못하게 된 여자들은 팁을 타 내려고 갖은 애교와 머리를 다 쓰게 된다. 이때쯤은 한말로 말해 시끄러운 시장 속이 된다. 그러나 마담이 친절하게도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환영의 인사말이랍시고 간단한 말 대접을 하게 될때 "여러분이 지불하는 음식값 속에는 아가씨들을 위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팁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하였으므로 팁을 타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손님에 따라 간단한 즉석 서비스(?)가 있게되면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팁을 요구하다 어쩌다 마담이나 지배인에게 들키는 날이면 호되게 욕을 먹고 심한 경우에는 그만둬야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이런 기생파티의 파트너는 무식하고 촌스럽게 생긴 사람 일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미인의 서비스에 감사함을 가지고 당혹해하는 순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의 아가씨는 체구가 대체로 조그만하고 여원편의 여자이다. 또한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면 기생생활을 오랫동안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 일본인 관광객이 싫어한다. 그러나 일본인 관광객들은 으레히 아가씨의 신분에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무얼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기생 아가씨들이 낮에는 학교에 다닌다고 하거나 직장에 다닌다고 적당히 얼버무려 넘기면 대개 딱하다는 표정을 짓고 텅으로 동정심을 간혹 표하는 수가 있다. 그렇지만 “창녀 대학도 있느냐”고 속을 훤히 들여다 보고 히죽거리는 베테랑도 있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기생파티에 참석한 관광객은 그것 자체가 한국에 온 목적이므로 99%가 동행을 하게 된다”고 제주도의 어느 요정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 중 이미 거래해온 단골 아가씨나 현지처가 있는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 호텔 서비스를 거부하게 되고, 그런 아가씨는 요정 측에서 그 뒷날밤 다시 좌석에 넣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값에 포함된 봉사료(팁) 라는 것은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에 지나지 않고 아가씨들은 아예 포기해 버린다. 또 요정 측에서는 이돈을 온갖 잡비 명목으로 제하고 자신들의 금고에서 내놓기를 꺼려하므로 이돈을 찾아 쓰려고 하는 아가씨는 정신병 환자가 아니고서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의 몰인정한 처사를 두고 한 아가씨는 “여자중에 못된년이 마담이되고 남자중에 못된놈이 요정 지배인 된다”고 투덜댄다.

제3단계의 서비스는 호텔방에서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정사의 과정이 되겠다. 이 앞에서의 복잡한 과정들 즉 일본에서의 모집, 국내 관광회사에서의 인수, 요정으로의 알선, 기생파티등이 바로 호텔방에서 이루어지는 정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기생아가씨들의 운명은 기생파티의 짝짓기에서부터 그 뒷날 아침에 호텔방에서 나오기까지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에서의 서비스를 위해 가는 방법도 74년 초까지만 하여도 관광객이 타고온 버스에 짝지워진 아가씨들이 동승하여 무리지어 따라 갔었으나 74년에 매춘관광에 대한 국내외의 비등한 여론으로 「接客 여성의 단체행동을 금하며 여성의 개별행동은 업주 책임하에 하되 보호를 받지 못한다」(그당시 서울시 관광과의 「대외비」로 된 회의자료)는 방침아래 방법을 바꾸어 지금은 대체로 따로 따로 나오고 있다. 또한 관광요정이란 명칭도 이무렵에 「한국요리점」으로 개칭이 되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요정파티에서의 흡족한 봉사료 재미를 본 관광객들이 차에 오르면 가이드를 맡고 있는 짙은화장의 40대 여자가 웃음을 지으며 즐거웠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모두 기분좋은 낮으로 뭐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히히덕 거린다. 때때로 자기의 짝이 되었던 아가씨의 명함판 사진을 손에 쥐고 옆사람에게 자랑하며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 보면서 히죽거리는 모습이 차창 너머로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관광객에게 기생아가씨들이 전화번호와 주소 성명을 사진 뒷 쪽에다 적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룻밤 스치는 인연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짐으로써 단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버스가 눈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약속된 여자들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영업용 자가용차에 4명씩 탄다. 자가용이 없으면 영업용 택시를 타고 뒤쫓는다. 눈치 빠른 택시 운전사는 기본 요금의 거리일지라도 2천원이나 3천원을 요구한다. 이럴때 자가용은 최하 7천원에서 만5천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관광요정 앞에서 밤만 되면 자가용 승용차가 즐비하게 아가씨들을 기다리고 있고 영업용 택시도 8시나 9시가되면 아예 도착순으로 돈보따리 기생아가씨 손님을 기다린다. 요정측에서도 아가씨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손님을 실어오거나 보내는데 쓰기 위해 보통 마이크로 버스라도 소유하고 있다. 이런 행위도 시민들의 눈에 띄게 된다는 이유로 74년 이후 금지시켰으나 막무가내이다.

## 5. 관광기생

### 가. 그 수는 얼마나 되나

이렇게 밤이면 일본관광객의 뒤를 미친듯이 쫓아 다니는 기생아가씨들은 몇 명이나 될까? 그 수요가 극소수라 하더라도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일이라서 그런지 통계놀음에 이력이난 관계당국에서도 정확한 집계 발표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조사자료에 근거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국내의 27개 관광요정에 속해 있는 정식 관광기생, 소위 「닷지」의 수는 7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관광협회 요정과에서 발행한 관광요원(接客원) 증 발부수가 2,400명으로 나와있고 요정 측에서 직접 발행한 것, 기타를 합하면 40,000명이나(서울시청의 자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포주에게 포섭되어 있는 콜걸 조직의 사창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2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있다(일본 아사히 주간지 73년 10월25일) 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어렵잡아 보면 현재의 통계 수치

를 근사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73년이라면 전국에 관광요정이 18개소에 지나지 않았었고 외래관광객의 수요도 현재의 60여%에 지나지 않았었다. 또한 일본인 관광객의 수준도 그때에 비하며 지금은 월등하게 떨어진 셈이다. 그 이유는 건전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였던 일본인 관광객은 70년대 초기에 이미 거의 한번씩 다녀 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후의 현재 관광기생의 수요는 전국 27개 요정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여자의 숫자만도 일만오천명 정도 되리라는 추측 통계는 하나도 과장이 아닐것이다. 포주 밑에서 지하조직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채 외국 사람에게 매춘을 하는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약 6만여명 그외에 되는대로 즉 한국남자이건 외국남자이건 모두 상대하는 여자까지 합친다면 20만명이라고 보도한 아사히 신문의 주장은 오히려 적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자료들의 통계를 보고 중간치를 어림 잡아 보면 10만명 정도 된다고 하겠다. 관광요정에 정식으로 속해있는 아가씨들의 수를 실제적으로 소개해 보자면 먼저 삼청각과 대원각에는(79년 봄 현재) 약 800여명까지로 최고이고 다음이 청운각, 선운각, 대하, 명월관, 오진암, 풍림 등으로 300에서 400명쯤 되며 다음이 150명부터 300명 사이인 다성, 별천지, 춘양각, 신라각, 청풍, 따위인 군소 요정이다. 지방의 요정과 호텔의 한국관도 최소한 50명부터 150명까지의 기생아가씨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관광요정들 가운데 10개업소는 종로구 Y동을 중심으로 좌우로 흩어져 자리잡고 있는데 낙원상가와 구 덕성여자대학 뒷편에 있는 명월관과 오진암, 대하, 청풍등의 요정이 있는 거리와 그일대는 바로 한국기생 관광의 살아있는 현주소라 하여도 나무랄데 없는 지역이다. 단성사와 피카다리 극장에서 비원앞까지 소라의 빈 속처럼 구불 구불하고 깊은 골목에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은 중 땡땡(종로3가 뒷 골목이 사창굴이었던 시절에 불리웠던 이름) 이라고 불렀던 옛날 사창들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어렵지 않게 한다. 1950년대 부터 1960년대까지 이곳을 무대로 매춘 행위를 벌렸던 밤의 꽃들이 서울시의 정화사업 계획에 밀려 단속을 피해 청량리 역옆의 「588」이나 미아리 「휘바람 골목」 따위의 지역으로 옮겨 간뒤에 전에 선배들 보다 더 수준 높은 방법으로 국가의 행정적인 지원을 얻어서 몸을 파는 새롭고 참신한 얼굴들이 이 자리를 메워 들어 왔으니 그들이 바로 관광기생들이다. 이곳을 통하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국내 모든 관광요정의 기상도를 알

수 있다. 관광요정, 일반요정, 카바레, 싸롱 따위의 이른바 화류계의 어느곳으로도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를테면 우이동 깊은 골짜기에 있는 선운각에서 지난 밤에 벌여졌던 색다른 화제거리를 오늘 안으로 가만히 앉아서 몸소 목격 한듯이 흰하게 알 수 있을만큼 이곳은 그 방면에 중사한 사람들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연락의 중심지 구실도 하고 있다. 이곳이야말로 이 땅의 귀여운 딸들이 기생이 되어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의 귀중한 몸을 일본인들에게 노리개감으로 제공하고 벌여 온 돈을 나눠먹느라고 온갖 추잡한 장난과 술수를 다 부려 살육제의 쇼를 벌이고 있는 한국판 「몬도가네」의 본거지 이기도 한 곳이다.

아가씨를 20명부터 50명까지 거느리고 그들의 정조를 알선하고 팔아 먹고 사는 포주들만도 500여 집이나 된다고 여기서 오랫동안 양장점을 경영해온 젊은 친구는 말해주고 있다. 이런 특수지역의 문제는 다음장에서 전국지역을 설명하면서 함께 살펴 보기로하고 여기에서는 이렇듯 포주밑에서 조직적으로 고용되어 일본인 관광객만을 상대하는 비공식의 관광기생 아가씨들이 상상을 불허 할만한 수요로 무리지어 생활하고 있음을 잠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땅의 관광기생은 적게 잡아도 10만명선이 넘는다는 통계가 근사치가 되리라는 점을 확신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위신과 민족적인 자존심때문에 과소평가 하더라도 10만명은 거의 정확한 통계가 될 것이다.

#### 나. 신분증명서와 호텔에 들기까지

호텔에 도착한 아가씨들은 자신들의 파트너가 들어 있는 방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기생아가씨들은 쉽사리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위 호텔 통과증이자 외국인에게 몸을 팔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허가증이 될수 있는 「접객원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다. 접객원 증명서의 발급과정을 보면 국제관광협회 요정과에서 요정에 나가는 기생아가씨들에게 발급해주는 것으로 접객원증을 떼어주기에 앞서 본인의 연령, 미모, 가정환경, 학력(최소한 중졸이상 원래는 고졸이다), 신원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상 조사서가 꾸며져야 한다. 또한 이른바 소양교육이라고 하는 교양강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교양 강좌는 관광협회 요정과에서 주최하고 관

광협회와 국제관광공사는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형식이 된다. 이런 교양 강좌가 지금도 보통 한철에 한번씩 1년에 두차례 이상 행해지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주로 문화체육관을 빌려 그 교육장소로 쓰는 모양이다.

교육을 받고 온 아가씨들에게 들어본 교육내용이란 저명한 인사나 교수들이 나와서 기생아가씨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우리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진요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과 손님을 맞아들이는 매너(?)를 외국의 예를 들면서 전후 일본여자들이 몸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일본경제의 건설이 가능 했다는 내용, 반공교육, 마지막으로 외화획득이란 성전(聖戰)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외국남성을 상대하여 몸을 파는 행위가 매춘이 아니고 애국행위의 발로라는 긍지를 가지라는 결론이 곁들여진다는 것이다.

부산 관광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런교육 실시의 목적을 "관광 종사원(기생)들의 신분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루나 이틀간의 이런 교육이 끝나면 증명서가 나오고 아가씨들에게는 관광요원 혹은 종사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는데 이것이 「라이센스(허가증)」가 되는 것이다. 이런 노골적인 방법이 말썽이 생겨 여론이 악화되자 관계당국에서는 발뺌을 하느라고 보건증이라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나 내용은 옛날 접객원증과 똑같고 발급과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용도가 같으므로 모든 아가씨들과 협회의 관계자들은 「증」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 통용되고 있는 보건증 혹은 교육이수증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보면 가로 7cm, 세로 12cm의 약간 두터운 종이에 해당자의 이름이 한글과 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와 바로 밑에 잇대어서 본적 현주소가 기재된다. 현주소의 세로의 방향으로 증명서의 보급번호가 적히고 그 번호 바로 옆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부분에 소속 업체가 기재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의 교육 내용이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정신대를 독려하였던 이 땅의 모모 여성들의 독려사와 어쩌면 그렇게도 취지가 비슷한가 하는 점이다. 그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처지와 지금의 독립된 처지만이 다르고 용어만이 다를 뿐이지 교육내용은 신평 정신대의 결단식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

여기 관광협회의 칭호대로 「교육이수증」이라는 증명서가 아가씨들에게는 딱지라는 은어로 통하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또 있다.

그 이유는 먼저 통과증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이유 보다는 통과세의 보증수표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원래 법대로 하면 우리나라 법에는 해방이후로 공창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측에서 꼬투리를 잡고 출입을 통제시키면 별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부 좋고 누님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오고가는 정이 있으면 서로 감싸주는 호뜻한 사이가 되기 마련이다.

요정의 기생아가씨들이 호텔에 일본인과 동숙하러 가고자 할 때 자신의 몸등이 다음으로 챙기는것이 바로 이 증명서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요정측에서 발부한 증명서이다. 여기에는 소속업체의 도장이 찍혀있고 기생아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등이 적혀있다. 아가씨는 호텔의 후론트에 가서 자기의 접객원증과 함께 확인이 끝나면 이 딱지라는 종이를 호텔측에 넘겨 주는데 이 딱지는 전포 구실을 하게된다. 불법 매춘을 묵인해준 댓가로 요정측으로부터 사례금을 받게 되는데 78년이나 79년만도 딱지 한장의 돈 가치는 2,000원이었다한다. 이 딱지는 시내 각요정의 뭇대로 분류하여 월간에 돌려 보내면 현찰로 계산되는 것이다. 이런 작태를 보도한 일본의 한 잡지에는 '신디케이트(요정협회의회를 칭하는 말)에 소속되어 있는 정식기생이란 아가씨들은 전부 「패스포드」를 소지하고 있다. 그것이 호텔의 통과 허가증이라고 한다. 그 패스포드에는 사진이 붙어있고 성명예방의 검진증명서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안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하는 말이 기재되어 있는 「라이센스」인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다음에는 또 '기생이라는 증명서를 가지지 못한 여자들은 호텔에 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호텔의 후론트에 「와이루」를 씌으로써 묵인되는 수가 일상다반사이고 이런 경우 증명서가 없는 자칭 기생은 삼천원 내지 오천원을 내면 오-케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증명서가 없는 불법 기생들은 호텔의 후론트와 친하게되고 혼자서 호텔에 드나들면서 호텔의 뽀이나 후론트에서 손님을 소개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호텔에 투숙한 남성에게 걸핏하면 뽀이가 주문을 해 오기도 하고 후론트에서 전화로 여자를 권하기도 하는 것은 많이 있는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글에서 지적 해주는 불법기생이란 포주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정과는 관계없이 그들 나름대로 연줄을 놓아 일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아가씨들을 말한다. 이런 아가씨일수록 호텔을 통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호텔에 드나드는데도 이런 까다로운 눈치를 살피고 침실에 들어간 아가씨들은 산넘어 산이라는 말과 같이 진짜

로 고달픈 시간이 되는 것이다. 밤의 서비스란 여자측에서 보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중노동치고는 상중노동 이라는 것이다. 서비스라는 것은 손님이 하자는대로 해주는 것으로 손님이 지지 않으면 뜬 눈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려야 하고 손님이 술을 먹을때는 함께 술을, 목욕을 함께 하자고 하면 고분고분 목욕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을 맞추기를 거부하고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서비스가 와루이” 서비스가 나쁘다 라고 말하면서 팀을 안준다고 하는 바람에 마음에도 없는 봉사를 빼가 으스스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장 징그러운 것은 일본사람들의 입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심하게 풍겨 입을 맞추는 것은 고역 중의 고역 이라는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5년동안 몸을 망쳐온 박모양은(27세) 원수 같은 돈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고 유린당하기 위해서는 숫재 의도적으로 파티 자리에서부터 술을 꼭지가 돌도록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가 해달라는대로 모든 봉사를 열심히 하노라면 하룻밤이 지나간다고 자신의 괴로웠던 경우를 털어 놓는다. 그래도 징그러운 생각에 사로잡히면 몸 위에 올려다 보이는 일본인이 괴물 같아서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은 생각에 몸을 바르르 떤다고 한다.

#### 다. 고달픈 관광기생

이정도는 그래도 양반이다. 어쩌다 재수없이 변태 성욕자를 만나게 되면 정말 공포의 한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모양은 일본인 관광객의 침대손님중 변태 성욕자를 딱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는 성교 중에 계속 간지럼을 먹이는 가벼운 정도였다고 한다. 주위 다른 「닷지」(기생)들의 경험담을 들은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느 여자는 목욕을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 주었더니 손님이 칼로 위협하며 들어오는 바람에 손을 들고 있으니 몸의 털을 깎아 버리더라는 것이다.

어떤 친구는 여자를 피흘리도록 두들겨 패놓고 피가 흐르면 깔깔대고 웃거나 그 피가 멎는 자국을 혀로 핥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니 천태만상인 모양이다. 최모양의 경험담은 일본인이 오히려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혼이 났다고 하니 그 증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변태 성욕자를 만날 경우에는 하라는대로 순순히 따르고 오히려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주면 차차 제정신을 차린다” 고 한다. 만약 반항하

거나 거부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수가 있다는 정도의 예비상식은 일본관광객에게 몸을 팔아 돈을 벌어 먹겠다고 나선 여자라면 다 아는 상식이다. 또 처음 발을 내딛는 순진한 기생지망생들에게 포주나 동료 선배들이 제일 먼저 이름을 묻고 그 다음으로 가르쳐 주고 주의 시키는 말이 바로 “변태 성욕자의 괴상하고 무서운 행동에는 반항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충고의 이야기이다.

기생아가씨들의 잡담중에 “애, 어제저녁 내것(일본인 파트너)말이야 눈빛을 보니까 변태지 않아 그래서 자리를 피했다니까”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김모양은 2년전 서울 S호텔에서 40대 일본 관광객과 동숙하게 되었는데 닷지생활 4년동안 그렇게 심한 변태 성욕자는 처음만났다 한다. 성교중 목을 조르고 발광하는 바람에 죽을 힘을 다하여 밀어제치고 발가벗은채로 튀어나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에 객실담당이 옷을 가져다 주어 살아 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 후로는 변태 성욕자인성 싫으면 확인 하여 야에 방을 하나 얻어서 따로 자고 돈벌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기생아가씨인 박 모양은 코를 크게 부상당한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손님중에 일본인 변태 성욕자를 만나 코를 들이 받고 몸을 이빨로 물어 뜯는 바람에 큰 싸움으로 벌져 파출소에 신고하게 되었고 거기서 겨우 치료비를 받아 냈다”고 말한다. 또한 부산 H호텔의 후론트 담당인 김씨는 “가끔 일본 여행객과 동숙한 아가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방을 따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여성으로서 가장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만이 알아 들을수 있는 은어로 욕을 해대고 못생겼다고 모욕을 준후에 돌려 보낸다는 것이다. 또 빠징고나 도박판에서 돈을 잃어도 동행한 여자가 재수가 없는 여자라고 하여 욕설을 한 후 돌려 보낸다니 참으로 피통이 터지는 치욕이다. 좌우간 이런 괴상한 발작증세들이 있는 일본인 관광객과 잠자리를 함께하다가 뭔가 잘못되어 죽어간 기생아가씨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다소 있는 모양이다. 최근에 일어난 이련류의 살인사건만도 기억나는대로 예를 들어보자면 79년 8월 20일 새벽 2시경 서울 중구에 있는 P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 「이노우에 노리시케」(일본 대판 거주 33세)씨와 함께 투숙했던 김 모(가명 18세)양이 욕조 목욕탕 물에 알몸으로 머리를 물 속에 잠근채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일본인 이노우에씨가 증언한 대로라면 “김양은 알몸으로

물이 반정도 찬 욕조에 하반신을 밖으로 내놓고 엎드려 머리를 물속에 박은채 숨져 있었다”고 한다. 김양이 욕실에 들어간지 20여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어 목욕탕에 들어가보니 죽어 있더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스스로 머리를 물에 처박고 자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뒤에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이렇다할 보도는 없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변태성욕자에 의해서 온몸이 담배불로 상처투성이가 된 콜걸이 엉망이된 몸매를 거울에 비쳐보고 비관 자살하기도 하였다. 79년 2월 상계동 사는 김모양(23세)의 경우가 그렇다. 또 다른 사건은 76년 어느해에 일어난 사건으로 권 모라는 기생아가씨가 역시 변태성욕자에 게 맞아 죽었다는 것이다. 그 여자에게는 세살짜리 사내아이까지 딸려 있었는데 그 뒤로 그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한다. 이 사건은 신문보도조차도 되지 않았다. 수출입국을 목표로 하고 수출에 혈안이 되었을 때 산업 현장에서 공상으로 죽은 노동자의 죽음이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였듯이 딸라별이를 위해서 관광입국을 세우다 희생된 기생아가씨의 억울한 죽음도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이해가 가는 일이다. 여자팔아 돈을 벌어 나라살림 꾸미는 주제에 무슨 자랑 거리가 된다고 잠자리에서 죽은 기생의 이야기를 신문에 보도 하겠으며 죽인 남자가 미울지라도 무슨 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동안 우리의 정치지도자란 사람들이 감초처럼 써 먹는 ‘필요한’이라는 말을 준비해 두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 박 모양은 이러한 변태 성욕자가 대체로 일본사람은 백명중에 이십명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원인은 지진이 심하고 원자폭탄의 휴유증때문이라고 제법 의학사전에나 있을 법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자 발버둥치는 정신적인 불균형 상태가 변태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더 타당한 듯 싶다. 가끔 피상망칙한 행동으로 본전을 툭툭이 뺏으려 드는 변태성욕자 들은 모든 기생아가씨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이렇게 뼈가 으스러지고 피를 말리는 서비스를 받고 아침에 헤어질때 화대 말고도 두둑히 툇까지 주는 마음씨 좋은 남자가 있는가 하면 밤새 시달리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든 틈을 타 오입비까지 때먹고 달아나는 암체족도 있다. 심지어 도둑을 맞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수난을 겪게하는 더러운 무리도 있어서 재수없으면 별의

별 고초를 다 겪는다고 한숨짓는 여자도 있다. 유모양은 이런 버릇이 나쁜 손님을 만났는데 자고나서 갑자기 카메라를 잃어 버렸다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포주집에 속해있는 비공식 기생인지라 신분이 탄로나면 포주집에까지 불벼락이 미칠까봐 화대는 고사하고 사정해서 무마시켰다면서 국물쏟고 사발까지 깨트리는 수가 가끔 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79년 여름에 일어난 일로 기생아가씨와 여관에 투숙한 일본인이 아침에 일어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소란이 났는데 알고보니 아가씨를 못민은 나머지 돈을 천장에 숨겨두고는 잠박이었던 모양으로 경찰에 가서야 생각이 났던지 다시 찾은적이 있다. 이런류의 도둑 누명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투숙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문텔이가 지방까지 원정하여 한탕씩 하는 사례도 생겨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한다. 80년 봄에 경주에 있는 K호텔에 관광기생과 투숙한 일본인의 방을 덮친 도둑이 그 예라 하겠다. 도둑은 호텔 종업원인 것처럼 문을 두드리거나 열쇠를 자르고 들어와 잠들어 있던 두사람을 침대에 포개서 묶어놓고 새벽 4시30분까지 차분히 기다리다 여자를 강간까지 하고서는 50만엔을 털어 도망간 사건이다. K호텔은 국내에서 그 규모와 시설을 손꼽을 만한 특급 호텔이다. 호텔내에 부설된 한국관까지 운영하여 아가씨 장사에는 이골이 나 있으면서 이따위 좀도둑 하나 막아내지 못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도난 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줄 양으로 관광안내원은 일본인들에게 “여러분이 머무시는 동안 절도에 주의하라”고 한다니 그도 기가찰 노릇이다. 그래서 그런지 79년 여름 제주도의 어느 해수욕장에 다섯명의 일본관광객이 아가씨들을 데리고 해수욕을 즐기러 왔는데 그 중 한사람은 그 많은 짐들을 지키느라고 땀을 흘리면서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기생아가씨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에는 도둑이나 네다바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여행사에서 들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우리나라는 썩 여자 값에 숫제 전 국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관광정책이 되는 것이 아닐까?

#### 라. 화대의 분배와 착취구조

##### ○호텔과 요정주변의 빈대들

눈덩이는 굴러 갈수록 커진다는데 이런 여자들이 번돈은 비맞은 소금 가마니처럼 갈수록 줄어든다. 호텔 방을 나설때부터 돈이다. 객실 담당



보이에게 같은 처지인 만큼 돈을 조금 주어야 한다. 그것도 호텔 출입증이 있는 요정 여자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일반 포주집 여자라면 이른바 딱지 값으로 최하 오천원을 주어야 한다. 이런 착취의 불문율을 착실하게 지키지 아니한 여자는 벨을 눌러 신호를 줌으로써 경찰이 무자극 매춘여성으로 알고 연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경찰에 끌려갈 경우에는 삼만원으로 해결을 보아야 하는것이 고정액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의 M호텔은 비교적 여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M호텔측의 방침이 아가씨들의接客원증 체크를 가능한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를 줄임으로써 아가씨들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런 조건은 아가씨들에 의해서 더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알선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이 성공하여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호텔업계와 기생아가씨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단속 경찰출처에서도 일개월에 몇명정도 적발하여야 한다는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각 호텔을 담당하는 형사들은 또 호텔측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호텔측에서도 전자와 같이 재미없이 구는 아가씨를 경찰에 넘겨 줌으로써 일거양득의 재미를보고 선심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호텔을 나선 아가씨가 택시를 세우면 운전수가 씨익 기분 좋게 웃으면서 문을 열어 준다. 척보니 관광기생이라서 아침부터 월척이 걸렸다는 기쁜 미소다. 요금을 정할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경찰서앞에다 차를대는 수가 가끔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거리라도 이천원은 주어야 한다. 목욕탕에서도 마찬가지다. 때밀어 주는 수고료가 5백원인데도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천원을 주면 인상을 쓴다. 단골일 경우 삼천원이나 사오천원 짬은 주어야 한다. 옷장수가 온다. 시장에서 삼천오백원인 허술한 치마 하나가 이런 여자들 한테는 팔천원에 팔린다. 목이 말라 맥주를 한병 사려고 구멍가게에 나간다. 시중보다 100원은 더 받는다. 네시경 요정에 일을 나간다. 저녁식사는 요정 주인의 친척들이 경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사먹어야 한다. 도라지 몇 갈래와 고추장으로 버물린 비빔밥과 콩나물이나 찐무우로 차린 백반이 천원이고 백원짜리 콜라 한병이 상점에서 단 몇 미터 이동한 자리세로 오백원이며 삼십원짜리 계란이 100원 그것도 구운것은 불값이 더 붙게된다. 저녁마다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하여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치는 화투가 상점에서 4백원하는데 한번 빌려 주고 되돌려 받는데 오백원인데 큰 요정에는 매일밤마다 화투빌려 주고 받는 돈만도 몇만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돈버는 방법도 가자가지다. 교회에 다니는 예수쟁이라고 하여도 다짜고짜로 초파일 날에 등 달아 준다고 무조건 오천원씩 떼지만 제등이 어느 절에 있는지 물어 보지도 못한다. 시중에서 3천원하는 세척기를 5천원에 떠맡기고 이런 생활 몇년째라 뻘히 다있는 줄 알면서도 이만원이나 이만오천원하는 한복을 사오만원에 억지로 떠맡긴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일원짜리 푼돈 쓰는 것이나 다름없이 오히려 신경질 날 정도이고 진짜 돈 나눠 먹기 수작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D요정의 경우 다달이 판촉비(판매촉진비-무엇을 팔기 위한 촉진비일까?)라는 구실로 한사람마다 십만원을 거둬들이고 잘 보이고 싶으면 이십만원쯤은 뒷거래로 쭈셔 넣어 주어야 한다. 두어달 만에 한번 정도는 이런 상납을 하여야만이 좌석에 번번하게 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S요정의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삼십만원이라 한다. 또 D요정에서는 손님에게 재탕(지난 밤에 함께 잤던 손님과 오늘 밤 동침을 다시 하는일)을 거부당했을때는 벌금이 일만원이고 함께 동석한 손님의 절반 이상을 오입 손님으로 잡지 못했을 때는 못잡은 여자가 만원씩을 벌금으로 물게된다. 다수의 아가씨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체적인 규율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벌금을 물린다. 지각하면 오천원 예고없이 결근하면 만원 이런식이다. 사소한 일에 몇번 걸려들면 오입비는 전액 요정측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요정의 지배인, 상무, 전무들은 대개 포주를 겸하여 자기 집에다 하숙을 치는게 보통이고 여기에서 요정에 나오는 아가씨의 경우. 몸판 화대에서 이천원쯤 더 뜯기게 되는데 이것은 높으신분이 잘 보아 주어 다른 사람들보다 벌이를 더 좋게 해주는 댓가라고 한다. 이러한 요정 내부에서 가능한한 몸만 남기고 모조리 거둬들이려는 듯한 착취는 그 세계에서 만성화 되어 버린 것이다. 그간 말썽이 일기도 하였으나 해결점은 용두사미로 호지부지 되어버린 것이다. 위와 같이 번돈을 다시 모두 빼앗기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게 되고 어쩌다 한 마디라도 잘못하면 지배인의 주먹이 몸에 먼저 와닿는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 2년 이상 하게되면 거의가 건강을 망치게 되어 핸드백에 사리돈 같은 진통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한 아가씨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손님에게 조금 소홀히 하거나 자리를 잠깐 뜨게 되면 으레껏 그런 악담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포주집 안팎의 거머리들

그러면 포주집에 팔려있는 여자들의 처지는 어떨까? "같은 몸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처지 일지라도 이른바 요정에 소속돼 있는 정식 기생과 포주집에 있는 아가씨와는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고 요정에 나가는 이 모양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아가씨들의 등급을 분류하는 말로 요정의 아가씨들을 정식기생 포주집의 아가씨들을 보조기생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정식 기생을 A급 포주집의 보조기생을 B급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포주집에서 돈벌이하는 여자들은 제몫으로 돌아오는 돈이 요정의 아가씨들 보다 적다. 호텔에 들어갈 때부터 요정의 여자들에게는 필요없는 통과세부터 시작하여 포주가 내놓은 월말 계산서는 다분히 더 복잡하고 지출 가지수가 더 많기 마련이다.

이들은 조직으로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 계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호텔에 까지 와서 일본관광객과 동침하는 과정도 그 여자들의 수효 만큼이나 각기 다르고 복잡하다. 우선 내친 김에 포주집의 분위기와 생활 형태부터 잠깐 언급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서울에서 일본인을 상대하는 아가씨들을 데리고 콜걸 장사를 하는 포주들이 무리지어 사는 지역은 종로구 Y동 일대와 신계 백화점 뒤편 골목이다. 그러나 그 숫적으로나 규모에 있어서 종로의 Y동이 단연 손꼽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포주 아니면 포주의 가족이거나 포주집을 드나들면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일수꾼이거나 행상들 중의 한 사람일 정도로 무리지어 운집해 있다. 포주의 이름도 쌍둥이포주, 엄마포주, 할머니포주, 언니포주, 삼촌포주, 따위의 인정미가 넘치는 이름들이다. 포주를 하기 위해서 별다른 큰재간이나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선 방이 서너개 되고 전화가 있는 집을 전세 낼 만한 돈이 있고 호텔의 이런 저런 관계자와 길을 틀 수 있으면 된다. 전화로 연락 받고 아가씨를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곳의 포주들은 대부분이 조용한 주택지에 따로 살림 집을 가지고 있고 다만 색시 장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집을 세어든 부류들이다. 또 대개가 닳지 생활의 이력이 있거나 여행사나 요정의 전직 간부나 가이드 노릇을 했던 사람들로 이런 속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도회지 방 서너칸에 많을 경우 50여명씩이나 떼지어 생활하여야 하니 그 분위기나 환경이 도저히 사람 사는 곳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마당에 들어서면 몇겹으로 쳐진 빨래 줄에 수없이 걸린 빨래들 부터가 얼마나 숨이 막히는 생활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색깔과 모양이 형형색색인 뽕나무 잎만큼씩한 팬티와 브라자 등 속의 진열

은 눈을 바로 뜨지 못하게 하고 미처 화장실 차지를 하지 못한 아가씨들은 아예 수채구멍을 소변 보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름철이면 아예 발가벗고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거닐듯이 하고 있고 그들이 포주로부터 받아 먹는 음식이란 한마디로 멸치가 밥상에 오르면 그날은 좋은 갈비가 나왔다고 환호성을 지를 정도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헤어 나고 싶은 본능에서 우선 해방의 한 방법으로 계산에 맞지 않는 오입도 가리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어쩌다 오입을 못나가게 되면 그 비좁은 방에서 허리가 휘어지는 칼잡을 자야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떨어진 돈의 액수가 적은 줄 알지만 오늘밤 잠자리 해결 한다는 마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박 양은 말한다. 위와같은 생활 여건의 악조건이 일본 사람들의 덤핑오입에도 쾌히 응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Y동 일대의 모든 생활 근거와 방법은 이런 여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 유통의 근본이 되고 있다. 포주부터 구멍가게까지 모두 마찬가지로 그 순서를 나열해 보자면 우선 포주는 직접 아가씨를 거느리고 돈을 착취하고 있고 일수쟁이는 달라 빛이라는 칼든 도둑보다 잔인한 이자놀이로 착취하고 있고 이집의 식모 아줌마까지도 팬티 한가지 빨아 주는 데 100원, 코트는 300원 이런 저런 잔심부름을 해 줄때마다 꼬박 꼬박 부당한 과잉 이득을 따내고 있고 옷가지나 이불 따위의 장사는 두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외상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착취하고 있다. 또 월수 전자제품 장사도 마찬가지이다. 그중에서 다소 이익을 주는 자는 암달러상이다. 시중 환율보다 다소 몇십원이라도 생각하여 주고 있고 이런 저런 편리를 봐 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팔아먹는 시세의 이익에 비하면 역시 과잉 이익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 포주집의 하숙비는 보통 7만원 정도이고 모든 물건은 공동으로 아가씨들이 전세내고 달마다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전화를 십만원에 전세내고 달마다 전화요금만 여자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색다른 손님으로는 주기적으로 포주집과 아가씨를 하숙치는 곳을 때를 맞추어 방문 하면서 잡귀를 쫓고 복을 불러 들어서 돈 많고 마음씨 좋은 일본 관광객을 만날 수 있게 해 준다는 부적을 일만원에서 그이상 팔아먹는 시원찮은 스님도 있다. 이처럼 이곳에 빌붙어 먹고 사는 축도 가지가지다.

요정에나 포주집에나 할 것 없이 이바닥에 붙어 사는 거머리, 이른바

날나리(미친놈이란 뜻) 족속들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인들을 상대하는 아가씨들은 스무살에서 스물다섯살 안팎으로 한참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갈 나이에 잘못 접어든 길과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사회의 잘못된 여건으로 짓밟힌 꽃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국의 아버지 같은 어른남자들 만을 상대하다 보면 같은 또래의 한국 남자들에게 정을 주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게 된다. 이런 헛점을 알고 사내들의 유혹을 기다리거나 유혹하려 들기까지 하는 기생아가씨들에게 장발의 젊은 날나리들이 벌떼 처럼 몰려든다. 이런 날나리들과의 중매는 나이 먹어 이제는 손님 좌석에 들지 못하는 퇴기의 기생들이 다리를 놓는다. 그리고 나이트 클럽에서 즐기게 되는 것이 보통 맺어지는 과정이다. 손님이 없는 날이면 허전한 마음들을 달래려고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그 뒤에는 으레 나이트 클럽에 가서 기분을 풀게 된다. 이런 나이트클럽에는 외국인만을 상대하여 영업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외국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수많은 이 땅의 젊은 남녀들이 미친듯이 소리치고 몸을 비비곤다. 맘에 드는 사람과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밤마다 동족의 젊은 사내들의 몸냄새를 그리며 나이트 클럽을 찾아드는 관광기생은 오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박모양은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런 여자들의 뒤를 쫓아 몰려드는 날나리들도 굉장한 숫자가 된다고 한다. 최 모라는 기생아가씨가 지난 겨울에 날나리와 하룻밤을 즐기느라고 술값부터 교통비 호텔비까지 칠만원을 다 맡아 썼는데도 아침에 헤어질 때 사내너석이 “지난밤에 봉사를 해 주었으니 화대(?)를 달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 같은놈 등쳐먹고 사는 년인데 너에게 돈을 주겠느냐”고 한번 쏘아 주었더니만 치근덕 거리다 가버리드라고 말한다. 이런 치들은 그래도 점잖은 날나리이고 한번 잠을 잤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번돈을 때때로 바쳐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날나리들은 원래 주먹쟁이 패거리들이 날나리 생활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과 폭력을 적당히 섞어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생활에 뿌리없이 지내는 기생아가씨들의 돈을 콧감 빼먹듯이 계속 착취하는 것이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할라치면 갖은 행패를 부리게 된다. 이런 행패에도 포주집에 있는 아가씨들은 자신들이 불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다. 요정에 있는 아가씨들의 경우 강하게 나오면 떨어지지만 포주집 아가씨들에게는 약점을 이용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 모라는 아가씨

는 삼개월동안 그동안 벌어들인 모은 저금 통장까지 다 바치고 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 면도칼로 얼굴에 자상을 주는 행패를 당해 성형수술을 하였다 한다. 포주측에서는 이런 행패를 보고도 자신이 저지르는 불법매춘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다만 아가씨만을 내어 쫓는다. 이런 지역에서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검정바지를 입은 사람이 나타 날 때이다. 경찰의 제복이 검정바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도 주기적으로 찾아와 손을 벌리는 손님중에 해당된다. 이곳에 사는 포주들은 경찰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얀 봉투만 건네주면 어렵지 않게 서로 호뜻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호들갑을 떠는 포주의 손아 경찰의 주머니로 스치는가 했더니 몇마디 이야기가 곧 부드러운 작별인사말로 변하는게 아닌가 그 모양을 보고 어느 아가씨는 “허가낸 도둑놈이 왔다 갔다”고 농쳐 넘기는 것이다. 이런 방법 말고도 돈을 좀 벌어들인 여자에게는 노름판으로의 유혹이 있다. 날나리는 뒤에서 조종만하고 푼만이를 앞세워 노름판을 붙여서 수백만원의 빚까지 지우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코를 꿰었다”고 한다. 청풍의 이 모양은 뛰어난 미모에 나이가 어려 단골 손님을 잘만날수 있었기 때문에 3년동안 1천만원쯤을 모았는데 날나리들의 노름판에 코가 꿰어 지금은 빚만도 삼백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간혹 또 기분 나쁘게하는 것은 아주 어린 걸패들이라 한다. 시내 어디서나 만나 볼 수 있는 검팔이나 그냥 한푼 달라고 조르는 「앵벌이」라고 하는 걸인아이들이다. 이런 조무래기 아이들까지도 기생아가씨를 한 눈에 쳐 알아보고 최소한 천원짜리 한장은 주어야 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쪽바리 상대하는 갈보라는등 기생이라는등 갖은 욕설을 퍼붓고 어쩌다 일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쪽바리하고 함께 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옷에 매달리어 창피를 주기때문에 한번 당해본 아가씨들은 아예 처음에 이천원 정도 집어준다는 것이다. 이런 꼬마들도 아예 기생 돈은 푼돈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다 물리치고 가난의 한을 풀기 위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고 굳게 마음먹고 생활하여 큰 돈을 모은 여자도 꿈에 떡보기로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박 모라는 여자는 기생으로 시작하여 모은 돈으로 사채 놀이를 하여 큰 줄부가 되어 이제는 관리인까지 두고 운영하고 있다. 개가 정승이 된 대표적인 인물로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곳에서 5년이나 살아온 스스로 고참 선배라고 말하는 조 모라는 아가씨는 “이곳에 있는 집가운데 화류계 여자가 살지 않는 집은 겨우 몇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음식점을 위시하여 모든 상가의 경기 기상도는 관광기생들의 벌이와 시세변화에 한치도 틀림이 없다. 골목안 조그만한 음식점에서 장사가 안되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푸념을 듣고 다방에 가서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주루루 몰려 들어와 “어제 저녁 쪽바리(일본사람)가 오지 않아서 공쳤다”고 하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다. 일본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되어 흔히 비유하는 “일본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든다”는 말이 미덥지 않게 들리는 사람일지라도 이곳에 와 보기만 하면 이말이 팔백원짜리 밥집에까지 예누리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 ○갓가지 공제액

대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정과 포주 밑에 속해있는 아가씨들의 몸값인 화대라는 것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 나가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를 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화대 즉 아가씨에게 돌아가는 실제 액수는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본인에게 소개 되느냐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 중간 소개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만났다면 화대의 전부를 아가씨 혼자서 차지 하더라도 누가 시비 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소개되는 경로를 몇가지 예로들어 보자면 먼저 관광요정이다. 요정에 소속돼 있는 기생아가씨는 여행사의 소개로 들어온 기생파티에 응할 때부터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호텔에까지 따라가 하룻밤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다.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관광요정의 기생에게 주는 화대는 일종의 섹스요금이다. 요정에 소속된 아가씨들의 화대에 대한 손익 계산서는 그날밤 함께 온 단체 관광객들의 파트너가 되었던 모든 아가씨들이 똑같이 나오게 된다. 일인당 화대는 100달러, 일본돈으로는 23,000엔, 한화로 환산하면 6만원이 되겠다. 이 6만원의 화대에서 만오천원정도를 여행사에서 떼어간다. 좀 규모가 큰 여행사는 만원 정도이나 적은 여행사는 만오천원이다. 이유는 관광요정이 한두개가 아니고 많은 수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요정으로 오라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속사정은 다른데도 있다. 이런 커미션도 처음에는 조그만 선물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관광요정의 관촉지배인들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과 관광여행사 직원들의

농간으로 화대의 50%인 2만5천원까지 올라간 일이 있었다 한다. 관광객 50명이면 50만원이 여행사직원의 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돈은 관광여행사 직원의 역할에 따라 관광요정을 정하는 결정간부, 관광 안내원, 경리직원 등이 적당히 나누어 가진다. 그다음 돈이 들어간 곳이 호텔 지배인이다. 1인당 천오백원내지 이천원이다. 그리고 관광객을 실어다 주는 여행사의 버스 운전사에게 3천원 기생파티의 유희을 돌구어 주는 밴드및 국악 악사들에게 3만원, 요정당번에게 팁을 1만원정도를 준다. 나머지는 관광요정의 지배인이 챙긴다. 관광객의 수가 50명이라고 할 때 총 화대 액수는 300만원 이중 관광여행사에 50만원, 호텔에 통과료 7만5천원, 악사비 3만원, 요정 종업원팁 1만원, 버스운전사 3천원, 그리고 접대부들에게 1백25만원 합계 1백86만8천원을 제하고 나면 63만 이천원이 남는다. 이돈은 요정 지배인이 챙긴다는 말과 그 속사정은 마찬가지다. 접대부들은 하룻밤 시달리고도 불과 2만5천원 받아 왕복 교통비 제하고 나면 이만원이나 만오천원밖에 벌지 못하는데 비하여 요정 지배인은 가만히 앉아서 60여만원의 큰 돈을 챙기는 것이다.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화대를 그나마 1개월내지 15일만에 계산하여 그동안은 거액의 돈을 이자놀이 등 돈놀이를 하여 짝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

화대 총액	250만원	기생 1인당	5만원
1. 관광여행사	50만원	"	1만원
2. 호텔통과세	7만5천원	"	1,500원
3. 밴드악사비	3만원		
4. 요정 종업원팁	1만원		
5. 버스운전사	3천원		
6. 요정지배인	63만2천원		
7. 접대 화대	1백25만원	"	2만5천원
8. 마담에게 사례?		개인별선심	
9. 호텔객실담당	3천원		
10. 왕복교통비(주로 콜택시)	평균 7천원		
11. 실제의 손익계산치		기생 1인당 1만원정도	

위의 자료는 79년 화대 착취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의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 ○빈손으로 나오는 아가씨들

다음으로 포주집에 있는 이른바 모구리(モクリ) (잠수쟁이-눈을 피해서 생계를 잇는 무리)라는 아가씨들은 더 비참하다. 이런 아가씨들을 부르고 알선하는 가장 큰 단골은 호텔의 후론트다. 호텔에서 부르는 경우 여자가 2만엔을 받아 객실 담당에게 주면 한화로 2만5천원을 내준다. 아가씨들을 못믿어하는 노련한 포주일수록 자신이 직접 다니면서 계산을 받는다. 이 돈에서 포주가 만오천원, 여자가 만원을 가지게 된다. 일만원의 화대중에서 교통비와 객실담당의 팁을 주고 나면 몸만 갔다 오는 식이다. 여행사에서 직접 소개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나눠먹는다. 여행사측에서는 여자만을 원하는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직접 포주집으로 알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때는 요정에 있는 아가씨 보다는 모구리 아가씨가 돈이 적게 들므로 차액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의 인삼 또는 기념품 파는 곳에서도 소개한 일이 있었기에 일본인들이 어디서나 물건을 사고나서 “아가씨는 얼마나”고 묻는다는 수치스런 관광풍조도 있었다. 제주도 어느 다방의 40대 마담은 가끔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와 차 심부름을 하노라 치면 레지 아가씨들을 가리키면서 2만엔 짜리라고 하고 마담자신에게는 3만엔 짜리라고 말하면서 히히덕 거린다고 말하고 있다. 돈이면 한국에서 무엇이든 살수 있다는 생각에 고등학생에게 돈을 보이면서 유혹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이다. 그밖에도 큰소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콜택시 운전수들이다. 본래 콜택시는 「한국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택시잡는 것이다」란 외국관광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족된 영업집단이며 고객은 주로 일본인 관광객과 기생아가씨들이다. 서울에서도 N동 일대와 요정 주변에 유별나게 자주 드나들거나 대기 상태로 몇대씩 줄서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콜택시의 증차 대수는 일본인 관광객의 입국 머리숫자와 정비례한다”고 어느 콜택시 운전사는 말하고 있다. 여행을 통하지 않고 두서너명씩 들어오는 뜨내기 손님들을 단골로 잡아 여자를 소개하는 일부터 호텔을 알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침식까지도 제공 받으면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는 뚜쟁이 노릇을 하기도 한다. 어떤 기사는 주로 자기가 사귀고 있는 아가씨들을 소개하여 돈을 벌게 만들고 또 그 번돈을 챙기는 녀석도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뜨내기를 잡아 소개하는 경우의 소개꾼들은 전직 요정지배인이나 관광사의 관측부

직원 출신들이라는 점이 공통으로 모두 회사 없는 지배인, 부장으로 통한다. 이런 무리들은 공항이나 호텔 언저리를 맴돌며 설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김 소장, 허 부장이라면 알사람은 다 아는 뜨내기 잡기의 명수들이다. 그러나 또 뭐니뭐니해도 뒷거래의 가장 큰 단골은 요정이다. 요정에서는 돈을 버는 김에 더 벌어 보자는 속셈으로 고정으로 깔려 있는 기생들을 적게 두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포주집에 대기하고 있는 모구리들을 불러다 부족한 수효를 메꾼다. 이런 때 임시 방편으로 보충되는 여자들을 보조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포주가 요정에다 보증금으로 천만원이나 이천만원쯤을 넣어줘야 한다. 또 요정쪽에서 보면 업소에 깔려 있는 기생들 보다는 더 싼 도매값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포주집 여자가 요정의 소개로 일본인을 따라가게 되면 최고 일만 오천원 정도를 아가씨에게 주는데 포주는 그돈에서 오천원을, 여자는 구천원을 나누어 먹는다.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빈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른 곳의 소개 보다는 못하더라도 놀지 않고 일하고 팁을 타 낼 수 있다는 구실로 이른바 「덤핑」도 꽤히 응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요정은 이익을 일만원 정도 더 남길 수 있으므로 핏먹고 알먹는 식이다. 이런 포주집에서 두해동안, 몸을 팔아온 전 모라는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밀천까지 팔아서 돈을 벌어도 버는년 따로있고 챙기는년 따로 있으니 이것이 소복, 대복 아니냐”고 덤덤한 투로 이야기 한다. 두해동안에 남은 것은 유행이 지난 옷가지 몇벌과 엇그제 일본 단골손님이 선물로 주고간 조그만 사진기 한대 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투덜댄다.

### ○속임수에 떨어진 농촌의 딸들

부산 W동에 있는 아가씨들의 학력을 보면 국졸은 10% 내외, 중졸이 40%, 고졸이 30%, 대졸이나 중퇴는 10% 내외이고 연령은 90%가 20대이다. 출신별로 보면 부산 출신은 30%에 지나지 않고 거의가 부산이나 마산 지역의 수출공단 취직바람에 이농한 농촌아가씨들이다. 「고졸이상」이라는 원칙이 서 있는 관광요정 아가씨들의 학력보다는 그 평균치가 조금 낮으나 일반 흥등가 매춘 여성들 보다는 월등히 높다. 지역은 다르지만 79년 봄, 여수시에서 「전전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윤락여성 생활대책」을 위해 작성한 설문에서 통계된 대상자 250명에 대한 연령 분포를 보면 20~22살이 98명, 22~25살이 96명, 26살 이상이 31명으

로 나타났으나 여기에서도 미성년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음 「윤락가에 발을 들여 놓게 된 동기」는 친구의 유혹에 의해서 20%, 돈을 벌기 위해서가 18%, 애인에게 배신 당하고가 15%, 좋은 직장이란 속임수에서가 25%, 허영심에서가 20%, 기타가 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속임수에 넘어가서가 25%로 가장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18%의 절실한 이유 이외에는 전부 사회의 유혹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관광요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들어 기생의 수는 비교적 적은 숫자이고 거의가 허영심이나 친구의 유혹, 개중에는 최근 몇년동안 호스텔스물 영화나 극이 판을치게 되자 자기도 호스텔스가 되어 수기를 씀으로써 일약 인기 작가나 스타가 되어 보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서 발을 들여 놓게된 경우가 30%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제주도 관광요정의 한 관계자는 말해주고 있다. 170명을 대상으로 희망을 조사한 결과, 결혼하고 싶다가 65명, 가게라도 차려 자립하고 싶다가 17명,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가 30명 별로 희망사항이 없다가 50명, 엉뚱하게 수녀가 되고 싶다가 1명이 있고 나머지는 무응답, 절반쯤은 현재의 생활에 체념한 듯하다. “관광기생들의 장래를 보면 화류계 생활을 청산한 예는 백명에 한명 꼴이다. 대부분 조금 나아진 생활이 다방 종업원이고 개미새끼 체바퀴 돌듯 이집 저집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서울 M관 지배인의 이야기와 “생활자체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기생이 된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이 이생활에서 빠져 나가려는 노력이나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기생 경력 5년의 손XX양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삶을 펼쳐려는 노력이나 이성은 환락적인 생활 속에서 마비되어 체념상태이고 그들의 말년은 잘되어야 유흥업소 마담, 돈있는 영감네들의 소실부인, 일수쟁이, 뚜쟁이 등으로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직업소개소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 6. 현 지 처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화대의 전액을 착취당하다 싶이 하면서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고 패션모델 같은 옷차림으로 가난한 소시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것은 화대 이외에도 팀을 타내기 때문이다. 화대란 여행사나 호텔측에서 직접 쟁겨 버리기 때문에

뒷날 아침에 헤어지면서 팀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또 일본 관광객들도 으레껏 그러려니 하고 준비라도 해놓은 듯이 내주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문제는 화대의 분배 과정에서 여자의 몫은 교통비만을 남겨두는 꼴이되므로 자기 몫을 따로 더 타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빠가 으스러지는”(아가씨의 말) 서비스와 괴상스런 행위나 요구에 대해서 까지도 달게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내 줄수록 팀이 두둑하기 마련인지라 은근히 그래 주기를 원하기까지 한다고 한 아가씨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팀을 타서 돈 모으기란 이세계에서 힘든 일이다. 그들에게 씀씀이란 모든것이 고급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불티와 같다. 잣다하면 호텔이고, 땀다하면 콜택시 아니면 자가용차이고 보는 옷은 모두 최신유행의 값비싼 옷이다. 이런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돈의 낭비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 속으로 빠져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돈을 모은 아가씨의 경우는 많은 단골을 확보하는 방법에 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현지처」라고도 부른다. 일본상사의 직원이나 또는 여유있는 손님 중에 낚시나 사냥, 골프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서너번씩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일본인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만 그의 현지처 노릇을 하기로 계약 결혼을 하게 되면 매달 생활비는 물론 아파트까지 장만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것을 “봉을 문다”고 말한다. 이런 봉을 물게되면 그 손님이 또 일본에서 한국에 나오는 친구를 소개하게 되고 계속 돈(손님)을 물어다 주는 것이다. 이런 손님이 오게 되면 요정에 나가지도 않고 아예 집에서 접대하게 된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요정의 파티보다 더 가정적이어서 좋고 아가씨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체제비용을 혼자 독식해서 좋은 것이다. “어쩌다 단골 두사람이 겹치게 되면 할 수 없이 한 호텔에 따로 층을 달리하여 방을 잡아놓고 밤새 왔다 갔다 하는 더블 서비스의 고달픔도 돈을 벌기 위해서 거뜨하게 해 치운다”고 제주도 요정의 한 관계자는 말해주고 있다. 이런 단골이 1년에 30여 차례나 왕래하는 경우까지 있다니 일본인들은 한국에 기생 만나러 오는것을 우리네들의 시장나들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현지처들과의 잠시 만남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부산 페리부두나 공항이라면 어디서나 목격할 수가 있다.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가씨를 부등켜 안고서 달래는 일본 남자의 손길이 여자를 감싸안고 있고 여자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망쳐버린 얼굴의 질은 화장은 가관이다. ‘나의

집에 있는 기생들은 일본 말을 할 줄 알지요. 그래서 도오코나 오오사카 고오베로 전화를 하거나 그곳에 있는 단골손님으로 부터 전화가 오지요. 몇일에 친구들과 오겠다고...' 이내용은 한국 기생파티 전모를 밝히려고 일본인 「사또우 사나에」씨가 쓴 르뽀 기사 한 부분인데 한국의 포주와 대담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이처럼 순채 한번 확인된 단골 손님을 전화를 하여 다시 불러들이고 있고 이런 단골에게 연초나 연말에 보내는 카드나 연하엽서를 한사람이 50여통씩 보내는 아가씨도 있다니 단골확보가 기생아가씨들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최후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현지처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방문할 때마다 만나는 단골 파트너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인과 아예 동거를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현지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큰 사건을 몇가지 예로 들어보자면 74년 8월 현지처인 기생아가씨가 일본인인 본처를 살해했던 사건은 현지처와 일본인 주부와의 삼각관계로 빚어진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75년 요정에서 알게된 모 여대생에게 학교까지 찾아가 현지처가 될 것을 강요하며 돈까지 우려낸 일본인 관광객의 공갈사건 및 갈취사건, 78년 10월 초 결혼을 빙자해서 기생아가씨에게 1천만원을 뜯어낸 일본인이 있었던 사건들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보자면 79년 9월 25일 서울 여의도 반도 호텔에서 일어난 일본인 관광객의 기생아가씨 살해사건은 한마디로 모두가 거론조차 하기 부끄러운 매춘 관광이 빚은 참극이었다. 숨진 기생아가씨는 「기요다 오사이」(44)라는 일본 남자를 기생파티에서 알게 되었다. 단순한 손님과 접대부란 사이였으나 두달 후에 다시 찾아왔을 때는 1백만원을 건넌 받고 현지처가 되었다. 그후 1개월후에 다시 왔을 때는 결혼하자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되었고 4번째 찾아 왔을 때는 기요다 오사이씨가 본부인과 이혼까지 하고 와서 결혼을 하자고 졸라 댔으나 이 여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고 이에 분격한 나머지 마지막 잠자리라고 다짐받고 들어간 호텔 방에서 시체로 나오게 된 것이다.

결혼 준비금 조로 주었다는 1백만원을 두고 어떤 기생아가씨는 "이따금 인심 후한 단골 관광객에게서 받을 수도 있는 액수"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요다씨」는 그 돈을 결혼 미끼로 준 것인데 이양은 단골을 유지해 달라는 호의 정도로 받아 넣었던가 싶다" 고 죽은 이양의 친구는

말하고 있다. 특히 나이도 많지만 잠자리를 함께 할때 목을 조르면서 즐거워하는 「기요다」의 변태적인 성행위에 "목을 졸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며 두려워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식으로 죽어간 물어성들은 매춘 관광의 제물이 된 것이다. 이런 현지처 문제로 일본내에서도 이혼율이 높아져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적이 있다. 몇년전 「22개 전일본여성단체」가 하네다 공항에서 벌렸던 「일본남성들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데모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위와 같은 현지처들은 주로 조그마한 비밀요정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처들의 아파트는 일본에 있는 단골이 소개하거나 단골들에 의해서 빈번한 파티 장소를 겸하게 된다. 현지처들이 살고 있거나 관광기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일본어 편지쓰기」이라는 조그마한 간판들이 골목어귀나 복덕방 같은 구멍가게 유리창에 붙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때 써주는 편지 한장에 대한 대필요금은 보통 3천원이다. 포주집에 속해 있는 어느 아가씨가 목격한 이런 비밀 요정의 속사정을 이야기 하는대로 여기에도 옮겨 보자면, "나는 나의 단골인 「가와구찌」의 친구되는 일본인을 따라 여의도 어느 고층 아파트에 있는 기생의 살림집을 가보게 되었다. 따라가서야 비밀요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맞이하는 아가씨도 빨간 기모노를 입었고 영화배우 뽀치도록 잘생겼었다. 그곳에는, 그런 아가씨가 세명이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집의 구조도 각기 방마다 전화시설이나 벨 장치를 하여 놓고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칸을 막아 서로 장사를 하기에 알맞게 집 구조를 약간 바꾸어서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나의 초라한 물품에 오금을 못 펴고 앉아 있다가 나의 단골을 재촉하여 달아나듯이 빠져 나왔다"고 비밀요정의 정경을 들려주고 있다. 이런 현지처는 어느지역이든 주로 아파트 지대에 살고 있다. 그지역의 택시 기사들에게 물어 보면 가장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다. 현지처와 단골 손님들의 나들이는 언제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기생아가씨들이 차에 타게되면 자기네들끼리 으레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는 주로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의 신흥고급 맨손아파트 지역에 제일 많이들 살고 있고 문현동이나 대신동 일대의 고급주택 지대에도 상당수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포니 자가용까지 부리는 현지처도 있다니 그세계에서 성공한 아가씨인성 싶다.

제주도에는 J 아파트와 그외에 S 아파트 단지내에서 그런 형태의 생

활을 하고 있고 주로 주택지에다 방을 얻어 사는 쪽이 더 많다 한다. 제주도과 부산에서는 일본인의 현지처란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상식처럼 가볍게 주고 받을 정도로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한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부인네들 입에서 그런 문제가 흘러나오는 투가 대체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으니 부럽다는 식이다. “우리 친척아이 누구는 일본사람과 사귀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네”하는 소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빈번하게 들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보면 이런 여성들에게 뿌리박혀있는 「외국남성 이라면 무조건 좋아. 죽을등 살등」하는 타락된 사고방식도 크게 반성해야 될 것 같다. 기생 아가씨들 중에 일본 관광객이 결혼하자는 말만 꺼내면 가진 것 모조리 주고 사기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니 6·25후로 기지촌 양공주의 꿈이 코쟁이 마누라가 되어 태평양 건너가는 것이었듯이 오늘의 왜공주들의 꿈도 현해탄을 건너가는 것인 모양이다. 이러한 관광붐을 타고 맺어진 기생들과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 오고 가는 혼담으로 생기는 사기결혼에 희생된 여성들의 인권문제도 큰 골치거리로 등장하였다. 1973년 12월 부산 가정법률 상담소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인 및 재일교포와의 결혼을 두고 빚어진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해온 여인들이 한해 1백 25명이 된다. 이들의 상담 내용은 “사기결혼을 당했으니 혼인신고를 말소할 수 없느냐”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중에는 “판사람과 결혼하려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상담이다. 연령은 22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하나 20대가 대부분이다. 매춘관광의 작태가 현재보다 덜 하였던 73년의 부산지역만의 통계가 이러할진데 그동안 사기결혼에 희생된 이 땅의 딸들의 수효를 통계 낼 수 있다면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 7. 특수지역

몸을 팔아서 생활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윤락여성들이 운집해 사는 특수지역은 국내 대도시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수지역이라 함은 도회적 역전 앞에 있을 법한 그런 흥동가가 아니고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윤락여성들의 경우를 의미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인들의 매춘관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독버섯처럼 번성해 나가는 「국제창녀촌」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특수지역은 크게 어림잡아 부산의 W

동, 대구의 J마당, 경주의 S 고지, 여수의 K동, 서울의 H동 등을 들 수가 있겠다. 이런 곳은 모두 1947년 이후 공창제도를 폐지하게 되어 사창도 공창도 아닌 어정쩡한 이름을 붙이다 보니 특수지역이라고 불려온 「밤의 세계, 즉 올빼미 마을」이다. 위의 네군데 가운데 그 규모나 역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유명도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의 W동을 들 수 있겠다. W동은 70여년 전 일본 제국주의 시대부터 미도리마찌(꽃이 있는 거리, 즉 공창을 의미하는 일본의 속어)라는 명칭을 가진 공창지대로 출발하여 1947년 법으로 규제되어 공창이 폐지 될 때까지 미도리마찌란 이름으로 불리어져 오다 W동으로 개명되었다. 이지역에는 120여개 업소에 1,500여명의 아가씨들이 몸을 팔고 있다. 이 가운데 검진증을 소유한 아가씨는 1,000여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곳을 찾아드는 외래객의 손님중 주종을 이루는 것은 한국이 초행이 아닌 일본인들이고 가끔 들어오는 미합정의 승무원들이라 한다.

W동은 멀리서 보면 고층 여관촌 같이 보이기도 하나 가까이 접근해 보면 예사 여관이 아니라는 점을 업소의 간판과 휘황찬란한 여관의 조명에서 느낄 수 있다. 집의 구조는 아가씨들을 전시하여 눈에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현관의 대기실(각시방 또는 미스방 - 이곳의 언어)이 있고 규모가 큰 집일수록 시설이나 그 규모가 호텔과 맞먹는 건물이다. 이런 호화판 집이 보통 5층으로 30여채나 되고 아가씨만도 한 집에 60여명씩 데리고 있으며 방의 수는 아가씨의 수와 같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다. 이런 업소를 등급별로 나누는데 “A급은 현관에 미스방이 있으며 아가씨의 방에는 욕탕과 칼라 TV시설이 되어있어 호텔과 같고, B급은 미스방과 욕탕시설이 없는 아가씨 차지의 방뿐, C급은 미스방이 없어서 거리에 나가 호객하여 영업을 하는 것으로 구별 한다”고 김모양(24)은 말해주고 있다.

‘내가 처음 그곳을 들여다 보았을때 정신이 멈추는 것 같아서 발을 한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곳은 네평쯤 되는 방의 삼면을 전부 우리로 붙여 놓았다. 그모양은 꼭 쇼윈도우 같이 만들어 놓았었다. 그방 안에는 20명쯤 되는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현관의 입구에는 연보라와 붉으스레한 전기불을 켜놓어 있고, 그 쇼-윈도우의 내부를 비추고 있는 전기불은 둥근 원형의 무대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같아서 눈이 아플 정도로 밝았다. 방 가구 하나 놓여 있지 않은 살풍경 할 정도로 하얀 방의 내부에는 핑크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젖백색의 질은 화장을 한



여자랑, 미니스커트를 입은 어린아이 같은 여자들이 일렬로 줄을 맞추어 정면 벽에 딱 붙어서 앉은 상태로 있었다. 20명쯤 되는 여자들이 무표정하게 앉아서 손님이 지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즐기기 위해서 찾아온 남자들이 자기를 사주기만을 오직 일념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글은「사또우 사나에」(佐藤早苗)라는 일본사람이 미도리마찌(일인들이 부르는 명칭)의 한 미스방에 전시된 한국의 여자들을 보고 느낀점을 글로 쓴 것이다.

현관의 미스방이라는 것은 푸주간의 「고기 진열장」과 같이 보였다. 고기의 신선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붉으스레한 조명을 해놓았듯이 미스방의 조명시설과 구조도 비슷하다.

성급한 아가씨들은 나카이(호객담당하는 여자)가 있는데도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그 유리어항 안에 앉은 채로 손짓을 하거나 왕크를 하며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바닥에서 아가씨를 고르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시장의 노예판매대에 있는 노예를 골라잡아 사가는 것과 같다.

한국의 기생파티를 생각하며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기생하우스」 다음으로 알고 있는 곳이 이 미도리마찌이다. 일본의 저속한 주간지들이 가끔 「부산의 미도리마찌라는 곳을 가게되면 기생하우스보다 돈이 적게 들면서도 즐길 수 있다」는 투의 안내 기행문이 실리기 때문에 일본의 바람끼 있는 남자들에게는 사랑 받는 곳이라 한다.

국제신문의 모기자가 말해주는 이곳의 아가씨들의 생활실태는 1,500여명의 윤락여성 가운데 수백명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때부터 매음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포주가 붙여준 가명을 쓰는데다가 주민등록증 없이 모두 나이를 속이고 있어 가려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어린 소녀들은 심중팔구 여종업원 모집광고의 함정에 걸려 밀매 조직에 접선되므로 이곳에 팔려왔다. 이들은 W동으로 팔려 올 때부터 포주가 밀매 조직에 지불하는 10~15만원의 소개료를 자기부담으로 안게 된다. 포주들은 「소개비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지만 이것이 빛의 올라가미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윤락녀들을 끌어 들이는 방법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밀매 조직」을 알아 보면 W동에도 수출증대에 고용이 높을 때는 인력난을 겪었다. 대체로 직장을 구하기가 쉬울수록 몸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여자들

이 즐기기 때문이다. 반면 76년부터 축재업주들은 호텔과 맞먹는 규모의 3-5층짜리 고급창녀관을 31채나 신축, 시설을 확장해 놓았다. 여자 1명만 피어오르면 월 20만원 가량의 순수입이 보장되는데 이런 시설을 늘려둘리가 없다. 이래서 최근 포주들은 밀매조직을 통한 윤락녀의 반입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부산에서 암약하는 밀매조직이 10개파가 넘고 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9년 5월 이런 밀매조직의 폐임을 당해 W동의 XX관으로 10만원에 팔려와 감금생활을 당하며 매춘을 해왔던 19세소녀가 탈출을 기도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완전마비되었던 사건이 있다. 하반신이 마비된 19세의 소녀는 그동안 감금생활을 이렇게 털어 놓는다. "밤 1시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를 경비원이 가져가 버린다. 낮에는 안내원이 문 앞에 지켜 앉아 외출을 감시한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있어 달아날 수가 없었다. 목욕을 갈 때는 사람을 따라 붙여 보낸다" 철없고 겁많은 어린소녀들은 이정도의 통제로 기를 죽이기는 간단한 것이다. 이런 감금생활을 한달쯤 하면서 강요된 매음행위를 계속하면 대부분의 소녀들은 자포자기가 되어 직업창녀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밀매조직은 남자 2명과 여자 2명, 이들이 임시고용한 전화당번 1명으로 편성돼 있었다. 이들은 여관방이나 식구가 단출한 가정을 빌려 그 여관 또는 가정의 전화번호로 여자종업원 광고를 내고 있다. 「광고: 준싸롱에 침식제공, 선불됨 ㉓-X158 주인」 이것은 김모양을 피어간 광고 내용이다. 이들 밀매조직은 소녀들을 술집에 먼저 데리고 가서는 30만원의 월수입이 보장 된다고 감언이설로 유혹한뒤 윤락가로 팔아 넘기고 있다. 이들은 점조직으로 돼 있는데다가 자주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추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79년 4월과 5월 부산시 보사국에서 일제단속을 폈으나 피해자들을 발견 못하면 이들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입건 할 수 있는 증거를 잡을 수 없는 데다가 사법권마저 보장되지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W동 관할 파출소나 경찰의 경우 이런 밀매조직, 또는 이 조직을 통해 팔려온 소녀들을 파악하기란 그렇게 힘든 작업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서부경찰서에서 W동 파출소장이나 일반 경찰의 발령은 영전으로 생각하는 자리이고, 담당 정보경찰도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라는 말이 설명해주듯이 경찰과 포주조합과는 너무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이 지역의 심각한 문제는 「히로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마약의 중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일본인들이 고객이 되다보니 해외반출의 접선근거지나 밀매조직의 아지트로 사용되기도 하고 쉽게 윤락여성이 복용하게 된다. 시 보건국의 집계에 의하면 실제로의 통계는 30%가 될 것이라고 어느 아가씨는 자기 나름대로 경험에서 오는 수치를 내놓기도 한다. 히로뽕에 중독되게 되는 동기를 보면 이지역을 근거지로 삼는 불량배들이 히로뽕을 취급하게 되어 아가씨들은 일본인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용하게 된다. 또 “손님을 많이 받게 되면 몸이 피곤하여 말을 듣지 않게 되는데 히로뽕주사 한방을 맞게되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남성관계도 하룻밤에 5~6명 정도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므로 이것을 오래 하다 보면 손쉬운 건강관리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고 한 아가씨는 이야기하고 있다.

W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간첩신보고다 히로뽕 밀매신고로서 정보를 제보하는자에게는 백만원의 상금을 준다는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손님이 밀어 닥치고 빛에 쪼들려 돈벌이가 다급하여 질 때에는 달마다 주기적으로 치르는 「생리현상」까지도 중지시키는 약(?)을 복용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요정의 기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피곤한 몸 때문에 손 쉽게 사용하는 것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로서 대부분이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정지역이나 흥동가 주변의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중의 하나가 아티-반 이나 사리돈이라는 진통제라고 요정가의 약국점원이 귀뜸해 준다. 윤락녀들의 건강상태가 이정도이기 때문에 진통제보다 효력이 좋은 히로뽕을 구할수 있다면 환영하며 사용한다는 것이다. “밤이 새도록 당하는 고통을 잊게하여 주는 것은 아티반 세알(보통 반알을 복용해야 됨)뿐이다”라고 말하던 포주집 관광기생의 녀두리는 거짓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W동에서 이들이 일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줄잡아 60억원에 이른다니 과연 국제적 규모라 할 수 있겠다.

## 8. 수출기생

“한국여성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기생 호스텔스가 대거 일본에 진출해서 몸을 바치며

밤 낮으로 분투하는 애국충정은 훌륭한 것이다” 이 내용은 1973년 10월 26일자 주간 아사히가 「기생의 분투에 문교장관이 최대의 찬사」라는 머리글자와 함께 당시 문교장관이었던 민모씨가 일본을 방문중 동경에 있는 한국학원을 둘러보고 동 운영이사회에서 연설한 연설문을 인용 보도한 것이다. 딸들의 정조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의 문교부장관이 하는 말치고는 정직하게 털어 놓은 이야기다. 문교부 장관님의 말마따나 우리는 귀여운 딸들의 정조를 외국에 수출하여 지금도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애국충정으로 외화를 벌기위해 일본에 진출한 기생, 호스텔스들이 그곳으로까지 가게된 동기와 경로는 여러가지이다. 대략 설명하자면 한국의 「기생하우스」를 일본에다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관광요정의 기생파티가 일본인들에게 인기를 끌게되자 돈벌이 하는데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일본사람들인지라 한국의 기생까지도 수입하게 된 것이다. 이런 유별난 수입품을 요구하고 나선측은 우리의 교포들을 앞세워서 아가씨 모집에 혈안이 되었었다 한다. 그러나 해외여행의 이유나 목적이 되지 못함으로 여권 신청의 구비서류에 결격 사유가 되자 예술인의 이름을 빌려 해외 연주나 초청이라는 그럴사한 이유를 붙이게 되었다. 이런 돈벌이에 관심이 큰 수출 기생의 후보자들은 장구치는 법을 배우거나 고전무용을 배우러 다니는 것이 한때 유행이어서 종로바닥의 고전 무용 강습소는 때아닌 만원사레가 되기도 했다. 더불어 이런 수출 기생들을 알선하고 코미션을 따먹으려는 중개인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수출입업계의 유통구조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오퍼상」의 역할을 떠맡고 나서서 조직적인 수출기생의 알선과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정조수출 오퍼상」은 서울에서는 이제 중심가에 버젓한 사무실까지 두고 번창하는 사업으로 특특이 재미를 보고있다. P아케이트 이층에 가면 예술인 해외취업 알선이라는 광고가 붙은 사무실이 있는데 그 내부는 별 다른 시설이나 사무실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다만 철제 책상하나와 쇼파와 의자 열개가 살림살이의 전부인 것으로 보아 복덕방과 같다. 다만 좀더 나은 것은 일본어로 크게 사진인쇄된 광고물에 예쁜 미희가 춤추거나 노래부르는 커다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곳에서 소개되어 나가는 해외취업 여성이 전부 기생아가씨들인 것은 아니다. 그중에는 예술인도 있기는 있으나 단연 수출기생이 그 목적인데 출국사유를 예술인으로 하고 서류구비와 수속의뢰를 하는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가끔

예술 한다는 여자들도 해외 공연이나 즉 촬영 관계로 출국하여 가지고 일본에서 고급 창녀가 되어 돈을 벌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인기 여배우나 가수들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방법은 일본 남성과의 혼인을 구실삼아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경우라 하겠다. 이 방법은 여권이나 비자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요즘 들어서 많이 써먹고 있다. 외국으로 이민가기 위해서 허위결혼 문서를 꾸미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류상의 결혼을 돈주고 사는 것이다. 1978년 1월 김 모(24)양(마포구 도화동)과 한 모(51)(영등포구 여의도동)라는 두여자가 「국외이송 유인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및 동행사협의」라는 길다란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다. 구속된 두여자의 기소장 내용은 한모씨가 호스테스인 김양을 일본에 보내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자신의 남동생인 한경수라는 재일교포와 서류상의 결혼을 시켰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과는 민법상으로 혼인이 성립안되는 데도 신랑이 살아 있는 사람처럼 위장한 것이다. 기왕지사 몸팔아서 먹고 살게된 팔자라면 좀 비싸게 팔아 목돈이라도 만져 보겠다는 무분별한 수출기생아가씨들의 일본원정에 대한 집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일본으로 원정간 수출기생의 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알길이 없다. 이런 통계는 정부당국에서도 극비사항으로 치고 서로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 옮겨다 놓은 한국판 기생하우스에 관한 보도 기사를 보면 오오사카에만도 한국판 수출요정이 50여군데가 있다하니 그외에도 오키, 고오베, 요코하마 등지의 일본에 전체 「한국판 수출요정」은 놀라운 숫자가 될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빅토리아 항이 내려다 보이는 홍콩의 중심가에 20층짜리 건물인 코리아센터가 있다. 이 우뚝 솟은 건물에는 한국 총 영사관을 비롯, 교민회, 20여개의 한국상사 사무실과 40여가구의 한국인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연건평 2천4백80평인 한국무역협회 소유의 이 건물은 어느모로나 국제도시 홍콩에서 한국을 상징하는데 손색이 없다. 한인 교회와 2세교육을 위한 학원까지 차려있는 이 건물을 보고 교민들은 「홍콩의 종합청사」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 자랑스런 건물의 19층에는 홍콩의 바람둥이와 건달 사회에 널리 알려진 나이트 클럽 「코리아가든」이 자리잡고 성업중이다. 코리아가든은 건물주인 한국 무역협회와 건물 사용계약을 맺고 월4백달러 봉급에 6개월 계약으로 모두 서울에

서 호스티스를 뽑아다 영업을 한다. 호스티스는 40여명, 지난 71년 11월 문물연 코리아가든은 밤9시 어두컴컴한 조명아래서 목포의 눈물, 돌아와요 부산항 등 한국 가요와 일본, 중국 노래를 한국인 밴드가 연주하기 시작하면 찾아드는 손님들로 붐빈다. 손님들은 대부분 돈푼꺼내 쓸줄 아는 중국인과 일본인이다. 이곳을 거쳐간 한국아가씨는 줄잡아 3백명은 넘는다. 문제는 밤12시부터이다. 손님들은 술값 이외에 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면 에스코트라는 명목으로 호스티스와 동반외출이 가능해진다. 자의반 타의반의 동반외출은 업주측의 묵인 내지, 허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에 의해 이뤄진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이른바 퇴폐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홍콩에는 필리핀인, 인도인 등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또 수많은 빠와 나이트 클럽이 있다. 하지만 코리아가든처럼 정부에서 호스티스 송출허가를 받아 자기나라 여자들을 집단으로 데려다 이런식의 술장사를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이 때문에 참다못한 교민들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코리아가든을 댄곳으로 옮기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연판장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총영사관의 한 당국자도 이 문제에 흥분을 가누지 못한다. 그는 “해외에 여자들을 내보내 돈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외교공관 꼭대기에 술집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중앙청 꼭대기에 기생집 차려놓은 곳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글은 79년 3월 어느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외교공관 꼭대기에 퇴폐 술집 차리다니」라는 기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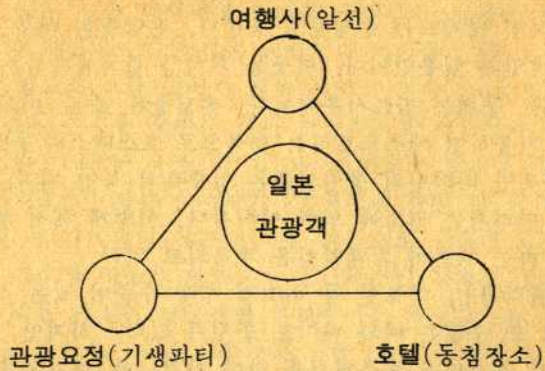
## 9. 여행사의 덤핑과 매춘관광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매춘관광 사업은 여행사가 시작을 한다. 즉 여행사는 데려오고, 요정은 파티장소와 기생을 소개하고, 호텔은 이들이 동침할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광객에 대한 매춘행위는 위의 세회사가 각기 같은 업주끼리는 신디케이트로 결속되어 있고 각기 다른회사끼리는 한 파트가 되어 삼위일체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삼위일체의 조직에서 어느 한부분 만이라도 공동호흡에서 빛나게 되면 장사는 다해 먹은 것이다. 일본관광객을 맞이할 때마다 그때 그때 만나는 세회사의 간판은 달라도 기능과 목적은 동일함으로 기계적

럼 움직이게 된다고 보아야겠다.

〈매춘관광을 위한 협력관계〉



그 중에서 하는 기능이 가장 어른적인 해외여행 알선업체는 25개 업체로 국내 및 국제여행사를 포함한 총 1백63개 업체 가운데 15%에 불과하다. 재벌 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몇몇 국제관광 알선업체를 제외하고는 재무구조나 경영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여행사는 단순한 용역제공의 오퍼상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관광 알선업체는 본질상 외국인의 국내여행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위해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뒤따라야 한다.

관광객 유치 면에서도 대부분이 일본인이므로 국제민간여행 알선업체의 80여개의 해외지사 가운데 81%인 64개가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 매춘관광은 국제관광 알선업체들의 구조적 모순들이 안고 있는 운영실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실태의 문제점들을 부산 A 관광의 한 관계자로부터 들어 보면 먼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과정이 단체로 직접 들어와서 한국의 여행사를 찾아와 가이드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일본 자국의 국제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관광객을 우리나라 관광사의 해외지사가 인수받아 오는 경우인 두가지라 한다. 그러나 첫번째의 경우는 극히 드문 예라 하겠다. 한국여행사의 현지에서의 직접관측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본 관광객은 일단 일본측 여행사의 손을 거쳐 관광객들의 체재비용에 대한 공매입찰의 과정을 거쳐 제일 낮은 액수를 써 넣은 한국측 관광업체의 해외지사에 낙찰되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해마다 년초가 되면 국내의 국제관광알선업체들에게 그해의 해외관광객 유치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 책임진 인원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의 여행사들을 동일시장에서 동일품목에 대한 과당 경쟁으로 덤핑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인해서 국제관광 질서는 문란케 되는 것이다. 이런 우리측 여행사들의 다급한 속 사정을 훤히 알고있는 일본의 여행사에서는 경쟁입찰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사들끼리 단일품목을 놓고 과당경쟁을 하게하고 여기서 이익보는 것은 일본 여행사가 되는 것이다. 교통부에서 지시하는 고시가격은 어떤 경우의 외래관광객이든 1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한도의 견적에서만 유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원칙은 말 뿐이다. "낙지가 자기 발을 잘라먹는 식의 손해보는 판촉인줄 알면서도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서로를 넘어 뜨려야 된다"고 그 고충을 털어 놓는다.

그래서 2박3일간의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비용이 79년에 103~115불이었던 것이 지금은 85~95불(20명 기준) 밖에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다. 매년 유치비용이 얼마씩 인상 되어야 하는것이 정상일진대 오히려 인하되어 더 많은 적자폭을 감수하게 되는 꼴이 되겠다.

이 정도의 적자 유치는 보통이지만 80년 초봄 일본에 연휴가 계속 겹치게 되어 2박3일 코스의 일본 관광객이 몰려 왔을 때 L 관광사에서는 한사람 당 65불이라는 파격적인 덤핑유치를 하여 군소 관광사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한적이 있었다. 관부페리 외에 사꾸라환이나 다른 여객선을 전세내어 싣고 들어오는 이런 덤핑단체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요정과 호텔도 덤핑으로 몰아쳐 수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서비스 부재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부산물로서 절도 사건 등 잡다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덤핑」 유치로 벌어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법이 기생파티와 호텔비, 식사비 그리고 쇼핑센터에의 안내에 대한 수수료, 교통편의 등에서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비용을 높임으로써 생기는 차액을 챙기는 것이라 한다. 2박3일의 관광객은 두끼의 석식을 보통 기생파티로 대체 한다. 그들의 관광 목적 자체가 기생파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혹적인 한국의 석식」이라는 말로 일본인들은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강조 되어야 할 점은 여행사에서 요정의 기생아가씨

들 화대중의 10%를 덤핑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10%라는 액수는 다분히 그때 그때 적자폭이 얼마로 떨어지느냐에 따라 늘어나게 되지만 혹자에 가까운 수치가 될때는 예외로 10%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행사에서 손해 볼때나 이익을 볼때나 양수잡이로 써먹는 수법이어서 이러나 저러나 험한 값으로 팔리게 되는 것은 아가씨들 몸둥이 뿐이다. 거기에 여행사에다 바치는 것은 화대 뿐만이 아니고 일본인들을 데리고 온 여행사의 판촉직원에게 가장 미모의 기생을 동속시키는 것은 빠지지 않는 인사치레이고 이럴때 아가씨의 화대는 그날밤 일본인들을 따라 나간 아가씨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메꿔주게 된다.

이와 같이 여행사들이 덤핑으로 유치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기생아가씨들의 화대를 착취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1978년 11월 부산 중부 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하므로 구체적으로 밝혀졌었다. 여기에서 보면 외국인 상대 관광여행사 직원들이 요정지배인들과 짜고 아가씨들의 화대를 소개비로 연간 수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여행사 등 국내의 여행사들은 부산시내의 관광요정으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받고 하루평균 1백50여명의 외국 관광객들에게 요정의 기생아가씨들을 소개해 주고 아가씨 한사람당 5만원씩 받는 화대중 1만8천원을 아가씨에게 주고 나머지 3만2천원은 여행사 직원과 관계자들이 나눠 먹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화대 착취의 수법이 국내 전체 기생아가씨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만하면 국내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여행사들이 아가씨들의 화대중 일부를 착취하여 그 적자 요인을 커버함으로써 만이 존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러한 만년 적자를 감수하는 덤핑유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첫째로 우리의 관광객 50명이 가고 일본의 관광객 50명이 오는 이러한 바터식 관광정책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 처리가 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일본 여행사의 하청업자로 그 상대적 지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모 관광사의 모 계장은 이야기 해주고 있다. 이런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손해보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란다.

여기에서 하나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나라 민족자본들임을 자처하고 기업의 정의로운 경영을 통해서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에 이바지한

다는 이땅의 재벌그룹들이 매춘관광에서도 극대의 이윤추구라는 잔인한 생리를 험껏 발휘하여 돈벌기에 여념이 없다는 점이다.

## 10. 건전 관광을 위하여

국제관광 공사는 70년대를 세계속에 한국 관광을 알리는 도약의 시대로 치고 80년대는 대중 관광시대와 대량 관광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외래 관광객의 수도 80년대 말에는 3백만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관광수입도 년 5억불에서 18억불로 늘어나게 된다. 이 많은 외래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시설과 위락공간의 확장이 뒤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관광 공사에서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경주 보문단지 관광 종합개발 10개년 계획」과 「제주 중문단지 관광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더불어 교통부가 마련한 「80년대 관광 정책안」에 따르면 제주도를 국제관광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제주도 전역을 「비자」가 필요치 않은 관광지로 개발하고 면세품 판매지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보문단지의 투자와 시설규모는 총면적 48만평의 부지위에 정부투자 4백92억원, 민간 자본유치 6백97억원 등 총규모 1천1백89억으로 집행되었고 단지내의 특급호텔만도 10개(객실수 3천)나 된다.

「제주도 종합관광개발」을 보면 정부는 75년부터 85년까지 총 7천4백20억원을 투입 제주도를 국제 수준의 관광 위락공간 지대로 만들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계획은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그 가운데서 중문 관광단지 조성 계획만을 살펴보면 중문지역의 단지에 인접한 우보악 지구에는 대유산업이 일본 골프진흥 공사의 차관선을 잡아 광활한 2백여만 평위에 국제유료 수렵장을 개발하고 있고 그 지역의 바로 밑에는 천체연 폭포를 안은 채 중문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문단지 개발을 85년까지 1~2차로 나누어 1단계는 78년부터 80년까지 완료되는데 여기에는 총 3백68억원을 들여 호텔 1천5백실, 여관 4백50실, 별장 1백동, 스포츠 및 휴게시설 21만평, 골프장 해수욕장 등과 6백90여평의 요정을 짓게 된다. 2단계 공사가 끝나게 되면 수렵장과 더불어 3백여만평의 위락공간이 경주, 보문단지와 함께 3백만명이나 되는 외래 관광객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죽박죽 종합개발」 「예산낭비한 시행착오」 등의 신문보도와 그곳을 가본 관광객

들은 「시멘트 범벅된 자연경관」이라는 식의 비난을 서슴치 않으니 당초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모양이다.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단지개발 자체의 허실보다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관광단지 생김으로 지금껏 말썽이 되고 있는 매춘관광을 일소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의 여망인 건전관광으로의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취지가 건전관광의 풍토조성을 겨냥한 것이라하더라도 문제는 기생파티의 진미가 몸에 배인 외래관광객—일본인—들에게 수렵장, 골프장 등이나 카지노판이 기생파티의 유혹을 떨구어 버릴만큼 매력적인 관심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

관광공사에서는 1979년 PATA(태평양지역 관광협회) 회의를 유치할 때 “매춘관광으로 이름지어진 한국의 관광풍토를 쇄신하여 외국손님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일본인을 안내하여 부산같은 곳이나 제주지역에서는 아가씨가 부족하여 다방아가씨들까지 팔려 나가 오히려 빈축을 샀던 기억이 있다. 따라서 국내전역에 흩어져 있는 매춘업소들을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온화한 기후를 배경으로하여 한곳으로 집약시켜 놓음으로써 말썽의 소지를 줄여보고, 외화벌이의 가장 큰방법인 매춘관광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보자는 속셈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 여건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된다.

매춘관광을 포기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의 모순이다. 총 200억불이 넘는 외채를 안고 수출보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수출입 정책의 만성적자는 해마다 그폭이 늘어나고 외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차관을 빌려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춘관광이라는 비난은 있지만 우리의 관광수입은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외화가득율과 맞먹고 있다. 77년 우리나라는 사상처음으로 수출실적 1백만불을 달성하여 온국민이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었다. 그러나 수출 1백만불의 외화가득율은 총 8억불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해 정부에서 발표한 관광수입의 액수는 수출의 반에 해당되는 3억7천만불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것은 실제의 관광수입은 정부통계보다 배가 된다는 점이다. 정부공식통계에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는 여

행사를 통해서 외환은행의 환불과정을 거치는 수입만으로 한정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행사의 공식적인 일정속에서 쓰는 비용만이 정부기관에 집계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비합법적인 유통기관, 즉 포주집의 아가씨, 쇼핑센터, 골동품등 사사로운 체재비용이 공식적인 통계와 맞먹는다는 것이며 이와같은 암달라시장으로 유통되는 수입까지 합하면 77년의 실제 관광수입은 7억4천만불이었다는 설명이 된다. 우리는 백억불을 수출하고 약 8억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댓가를 지불 하였던가. 그러나 관광수입의 7억4천만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점이 있다면 딸팔아서 먹고 산다는 외국의 기본나쁜 여론을 못들은척 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할 시설도 희생도 눈에 띄게 치루지 않았던 것이다.

78년도 일본의 경제지에 ‘한국의 달라암시장에는 불법적인 매춘조직에 의해서 벌여 들여진 약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거액이 유통되어 한국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보도가 조그맣게 실리기도 하였던 점으로보아 암달라 시장으로 유통되는 비공식 집계 관광수입은 매년의 공식집계와 맞먹는다는 것은 사실인것 같다. 이렇듯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관광수입은 크게는 특수층 재산해외도피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최근의 한 밀수조직의 사건이 말하여 주듯 관광수입은 밀수자금, 유한마담들의 부동산투기자금, 기껏해야 계자금으로 동원 되는등 모두가 불건전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경제구조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어느 경제부 기자는 말하고 있다. 이런 손쉬운 돈벌이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매춘관광풍토는 「농자니 깨지고 들자니 무거운」식의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80년대 말이 되면 외래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하게되고 따라서 기생하우스나 기생의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을 예상 하기라도 한듯이 제주중문단지 계획에는 6백40평의 건평을 가진 한식요정(관광요정)이 들어서도록 그 청사진을 내놓고있다.

그럼 80년대 말경이 되면 외화벌이에 몸을 파는 우리의 딸들은 몇명이나 될까?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 하겠다. 관광객 백만명을 유치했던 78년도의 공식, 비공식 통계, 즉 외국인을 상대하는 아가씨들의 수는 콜걸조직까지 합하여 적게 잡아 10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80년대 말에는 관광객의 수가 3배가 되므로 이에 정비례하여 매춘여성의 수도 30만으로 자연스럽게 늘어 날 것이다. 전국 행정단위 부락을 약 3만7천여개로 잡으면 1개 부락에서 20대 소녀를 8명씩 차출

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세계 속에 한국관광을 알리는 도약의 시대」(관광공사의 주장)였다는 70년대의 한국관광이 세계에 심어준 실제의 이미지는 '유신과업을 부르짖는 한국의 여성들이 밤손님을 끌고있고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은 유곽지대가 되어가고 있다'(73. 6. 25일자 일본의 자주논단)는 것이며, 코리아 타임지(英字)로부터 '관광사업은 가장 수지가 맞고 그중 섹스가 가장 이익이 남는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예쁜 소녀를 대학에 보내지 말고 기생을 만들어야 하고 미소년도 여성관광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꼬집히는 등 매춘관광국으로 유명해진 것이었다.

이나라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매춘관광 수입으로 메꿔보려는 안이한 정책은 우리 국민 모두를 딸의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치사스럽고 원통한 처지로 몰고갔다. 이제라도 매춘관광 코리아의 오명을 씻고 딸들의 비참한 울가미를 벗겨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여성 연합회는 지난 1983. 5. 11일 당국에 기생관광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보낸바 있다.

#### 다 음

1. 유희관광이 아닌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유희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들고나오는 유희여성을 자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점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3.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밀매조직 및 유희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마련과 실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유희여성을 유희의 길에서 헤어نا지 못하게 하는 폭력, 중간착취, 불법감금행위와 관계기관과의 얽힌 이해관계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대수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연예인 해외송출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매춘부를 해외로 내보내는 소위 '가짜 연예인 수출'의 금지를 건의한다.
6. 고객의 덤핑유치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춘의 근절을 위해 정부에 의한 숫자 할당식의 관광객유치 강요 정책의 전환을 건의 한다.
7. 제주도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새로운 매춘지역의 종합화가 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건의 한다. \*

#### 한국 교회 여성연합회 자료 제 I 집

인 쇄	1983년 6월 27일		
발 행	1983년 7월 12일	발행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쇄소	가톨릭출판사

44. 8. 6